

태권도 활성화 및 세계화 전략 연구

책임연구자 : 조현주(한국스포츠개발원)

공동연구자 : 김형성(성결대학교)

김두한(한국체육대학교)

최준규(한국스포츠개발원)



태권도 활성화 및 세계화 전략 연구

요약문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가라테 등 유사종목과 올림픽 종목유지 경쟁이 심화에 따른 글로벌 위상 강화의 전략적 접근 필요
- 2) 국제적으로 스포츠화 된 경기 태권도 지원과 전통 무예로서의 태권도 고유성을 유지한 발전 지원에 대한 균형적 관점 적용
- 3) 기존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 정비

2. 연구의 목적

- 1) 태권도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원인력, 정보 및 지원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미래 방향을 제시
- 2)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국기 무예로서 태권도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 추진 방향성 제시
- 3) 미래의 태권도 세계화 전략화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II. 태권도 지원 체계 거버넌스 현황

1.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 및 관리 유형

- 1) 조직간 정책집행 구조는 연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순차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호혜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으로 구분
- 2) 태권도 관련 조직이 직접 관련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조직 간의 조

- 정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태권도 내부에서 나타난 조정기관이라고 인식
- 3) 직접적인 태권도 관련 활동은 행하지 않고 다른 태권도 관련 조직들에게 다양한 지원 및 조정역할만을 하는 단체들의 경우 외부관리자로 규정

2. 태권도 지원 인력, 재정, 정보, 지원 체계

- 1) 태권도는 국내외 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으로 대표 조직 보유
- 2) 각기 다른 조직의 산발적 운영으로 인해 사실상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 틀이 가능
- 3) 현재 각 기관 및 조직은 연합적 상호의존성의 거버넌스 틀에 제한적 활동

Ⅲ.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1. 국제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위상과 체계

- 1) 208개국 8,000만 수련 인구로 성장 가속화를 달성
- 2)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 올림픽 운동에 적극 참여를 지속

2. 국제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와 문제점

- 1) 경쟁 종목인 가라테의 정식종목 지위에 대한 위협이 계속.
- 2) 세계태권도연맹과 우리나라 기구들 간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
- 3) 세계적으로 유사 종목과의 차별성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

Ⅳ. 국가 무예로서의 태권도

1. 국제 무예로서의 태권도 위상과 체계

- 1) 국내 12,000개 일선 태권도장 분포 및 보급 콘텐츠화
- 2) 과거의 무예서 현대의 스포츠로 발전하는 사이 교육 및 수련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 3) 태권도산업은 태권도의 연관 산업 중심으로 발전의 잠재성 농후

2. 국제 무예로서의 태권도 위기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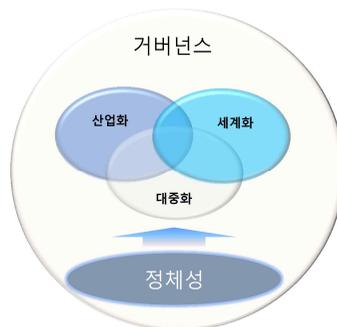
- 1) 태권도 관련 정책 및 제도가 태권도를 조직하는 최하위 관련자에게도 영향이 확산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조화
- 2) 태권도 지도자 및 연관자에 대한 활성화 정책의 수혜자 다각화

V. 지속가능한 태권도 발전 방안

1.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 1) 조직들 간에 공유된 목적이나 신념, 정치적 이해관계, 자원의존 및 교환동기 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 분석 필요
- 2) 위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모형은 < 그림 1>과 같음.

<그림 1> 태권도 상생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모형



2. 태권도 조직별 현안과 과제

- 1) 태권도 교본의 활용도 개선, 국내 도장이 활용 가능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중심의 홍보 사업의 전반적 개선, 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확대, 해외 도장의 국내식 수련 시스템 확산, 외국인 수련생간 태권도 수련 이해도의 이질감 극복 등 고려
- 2) 조직별 기능을 분석함에 따라 국내외 태권도의 현안과 과제가 <그림 2>와 같이 구분되어 분석됨

<그림 2> 국내외 태권도 현안에 따른 개선방안

	현안	문제점	개선 방향
태권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권 관리의 국기원 일원화 도장 지원 체계 미흡 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부협회 지도자의 심사 관여 대태협 및 지부 협회별 일관성 없는 사업 승품단 관련 행정체계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기원 감독관 파견 시도 및 구지협회 국기원 사무관 배치 지도자 활용 가능 온라인데이터베이스 강화
교육수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교본만 존재 지도자 자격자 지속 배출 인성 교육 트렌드 반영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적용 메뉴얼 부족 자격증 보유 중심의 자격제도 개별 도장 자체 개발, 검증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트렌드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자격 시험 내용 및 관리의 강화 연구소의 교육 메뉴얼 직접개발 및 현장적용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 및 조직별 경기의 과다 시범단수의 지속 증가 태권도의 대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도장의 대회 참여의 어려움 공연 비즈니스 체계의 미완성 비련인구의 접근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장의 클럽화 고려, 조직별-특성별 대회정보 공유의 장 보완 국립 시범단설립 재검토 태권도 문화 거점 지역 지원
연구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성과의 보급 미흡 미래 산업 준비 부족 도장 운영 관련 정책 대응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적용이 미흡한 연구성과 적재 현 트렌드 대응에도 미흡 태권도장 운영 현장에 혼선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를 자료로 출판하여 홍보 연구소의 독립 및 기능 강화 정부 정책 대응 전담 부서 운영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도장 교류 미흡 해외 우수 지도자 교류 미흡 해외 도장에서 아동체육화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도장의 프로그램 일방적 역수입 국내 문화와 교류의 어려움 이종무술의 현대화에 비하여 태권도의 기술적 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기원에서의 해외 우수도장 연구팀 운영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우수 지도자 교육 채널 공연예술기획 및 프로태권도 설립

<그림 3> 5대 전략적 영역별 태권도의 세계화 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접근 전략
거버넌스	4대 조직의 역할 기능 중복	4대 조직 수장 협의체 구성	단계적인 업무 조정 및 통합
	심사권 문제	국기원으로의 중앙 집권화	시도 및 구지협회 국기원 사무관 배치
	도장 지원체계 강화	국기원의 관리 부서 설치	시도 지부 협회 교육 담당관 배치
대중화	성인 및 노인 태권도 프로그램 미흡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발	현 아동 수련자의 성인기 지속 수련 유도
	미디어 노출의 미흡	글로벌 스폰서십 확보	경기 외 이벤트 개발
	연관 상품 및 서비스의 부족	태권도 전문가의 비즈니스 개발 지원	태권도 전공자의 직업진로 개발 연구
정체성	기본 교본만 존재	교육 트렌드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연구 성과의 보급 세미나 정기적 개최
	경쟁 무술과의 차별화	ITF 태권도와의 통합 가속화 지원	국제 이벤트 내 교류 및 연구 교류 강화
	관련 연구의 미흡	태권도 및 비태권도 전문학자 연구지원	국기원 연구소의 독립 기관화
산업화	사범의 고용 안정성 취약	4대 보험 의무화 및 영세 도장 지원	국내외 환경 분석 후 차등 적용
	태권도 연관 산업 벤처 부족	4대 조직 합자의 창업센터 설립	인재 양성 및 벤처 스타트업 지원
	미래 산업 준비 부족	연구소의 독립 및 기능 강화	정부 정책 대응 전담 부서 운영
세계화	해외 도장 교류 미흡	국기원에서의 해외 우수도장 연구팀 운영	국기원에서의 해외 우수도장 연구팀 운영
	해외 우수 지도자 교류 미흡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우수 지도자 교육 채널	재외 한국인 지도자 이외의 외국인 지도자
	해외 도장에서 아동체육화 흐름	공연예술기획 및 프로태권도 육성	태권도원을 활용한 이벤트 기획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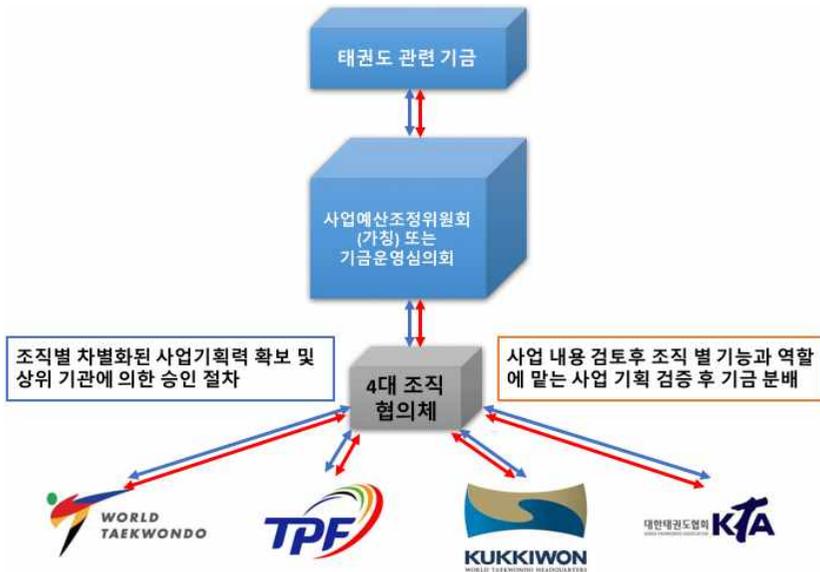
3. 전략 영역별 태권도 세계화 방안

- 1) 거버넌스, 대중화, 정체성, 산업화, 세계화의 전략 영역 구분
- 2) 전략 영역별 세계화 지원 전략 구성
- 3) 4대 조직의 수장 협의체 구성
- 4) 일반적 수련에서 전문적 수련으로 확대되는 지속성 확충
- 5) 사범 지도자 인적자원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6) 연구 네트워크 강화 필요, 태권도 연구소의 독립
- 7) 해외 우수 외국인 지도자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 8) 타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인적자원 영입 지원 제도 마련
- 9) 4대 조직 통합 태권도 비즈니스 창업센터 설립

<그림 4> 4대 조직 협의체 구성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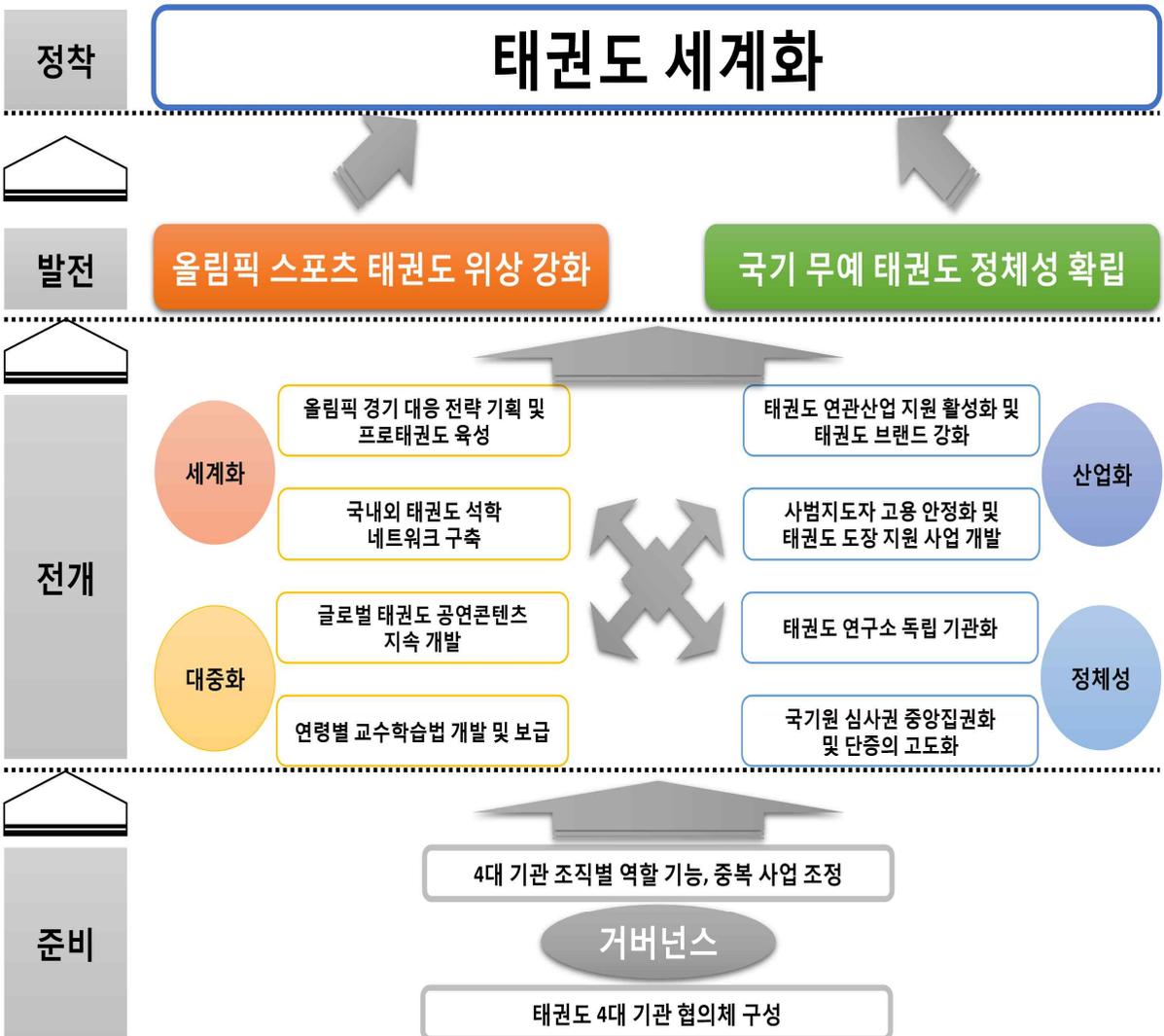
<그림 5> 4대 조직 거버넌스적 기능 발전을 위한 개선안



4. 태권도 세계화 전략 로드맵

1)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발전 방향 설정 및 과제 발굴

<그림 6> 태권도 세계화 전략의 로드맵



VI. 결론

1. 정책 제언

- 1) 세계화 전략의 준비기에서는 거버넌스적 전략체계 재정비
- 2) 전략의 전개기에는 정체성: 태권도학의 이론적 정립, 대중화: 글로벌 상품의 내실화, 산업화: 태권도 연관산업군 지원강화, 세계화: 태권도 경기의 올림픽의 가치와 기능적 역할 고도화 등을 목표로 각 범주 및 영역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시
- 3) 발전기에는 실행된 각 전략에 따라 이원화된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국기 무예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
- 4) 정착기에는 세계화 및 산업화 등의 전략적 목표 달성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1) 태권도 조직 기능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 마련 필요.
- 2) 태권도 연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체계 연구 필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 내용	2
1) 올림픽 스포츠로서 태권도 발전 방안	2
2) 국기 무예로서의 태권도 발전 방안	3
3)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토대로 한 태권도 지원 정책 방향 설정	3
II. 태권도 지원 체계 거버넌스 현황	4
1.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 및 관리 유형	4
1) 거버넌스의 개념	4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리 유형	7
2. 태권도 지원 인력, 재정 정보, 지원 체계	11
1) 태권도 주요 관계자	11
2) 태권도 거버넌스의 체계 분석	15
III.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17
1. 국제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위상과 체계	17
1)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현황	17
2) 올림픽 운동의 실천과 태권도	19
2. 국제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위기와 문제점	22
1) 올림픽 스포츠 지위의 지속	22

2) ITF와의 관계	26
3) 유사 무예스포츠와의 관계 및 차별성 강화	27
IV. 국가 무예로서의 태권도	29
1. 국가 무예로서의 태권도 위상과 체계	29
1) 국내의 태권도의 보급 현황	29
2) 태권도 수련 및 교육의 문제	32
3) 태권도 연관 산업의 활성화 문제	33
2. 국가 무예로서의 태권도의 위기와 문제점	35
1) 태권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문제	35
2) 태권도 지도자 고용 활성화 문제	37
V. 지속가능한 태권도 발전방안	40
1.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40
2. 태권도 조직별 현안과 과제	45
1) 태권도 4대 조직의 기능 분석	45
2) 국내.외 태권도 현안에 따른 개선방안	46
3. 전략 범주별 태권도 세계화 방안	52
4. 태권도 세계화 전략 로드맵	66
VI. 결 론	68
참고문헌	70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태권도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현재 전 세계 208개국 가맹국과 8,000만의 수련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무예스포츠로 평가 받고 있다. 태권도는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를 한국에서 창설하고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이 창립된 이후로 실전적 격투 무도의 형태에서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외연적인 성장을 지속해왔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태권도의 발생국으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으로 구분되는 태권도 주요 4대 기관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기술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적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면 그 발달의 양상이 다른 현대 스포츠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태권도 올림픽 스포츠 경기화를 가속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전통 무예적 가치가 훼손되고 기능 중심의 태권도가 우선시 되어 태권도가 본래 지닌 다양한 가치를 살리지 못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발생국가로서 태권도가 지닌 고유의 정신과, 철학, 기능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향상 시킬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경기화된 태권도는 서양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마저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태권도의 발생국이라는 명예를 드높이고 태권도를 통한 세계평화

에 기여하며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일어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태권도 세계화 전략을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를 통해 지난 태권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태권도 주요 4대 기관의 조직적 활동의 가치와 역할 및 기능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의 거버넌스적 조직정비를 고려한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원인력, 정보 및 지원체계의 현재를 탐색하고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국기 무예로서 태권도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과제와 발전 방안과 국기 무예로서의 태권도 과제와 발전 방안을 규명하여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토대로 한 태권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태권도 관련 조직의 활동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의 범주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1) 올림픽 스포츠로서 태권도 발전 방안

이 연구는 올림픽 종목으로서 태권도의 발전 방안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태권도를 위한 지원 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세계태권도연맹과 타 태권도 관련 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세계 스포츠계 경쟁 종목 사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의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국가 무예로서의 태권도 발전 방안

이 연구는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함께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으로 태권도 고유의 가치를 정립하여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예로서의 태권도의 가치를 전 세계인이 인정할 수 있도록 태권도 외 전통무예와의 연계 및 상호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체계의 기초 전략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토대로 한 태권도 지원 정책 방향 설정

태권도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등 태권도 관련 국고보조 사업과 정책의 수행기관들에 대한 상생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최적안 도출 가능) 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 태권도 지원 체계 거버넌스 현황

1.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 및 관리유형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 라는 개념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국가 역할의 변화에 대한 견해이다. 21세기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정부는 기존의 국민국가와 산업화에 익숙한 통치방식인 전통적 행정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부의 통치형식이 변화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즉, 기존 정부는 주도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공동체의 공익활동이나 공공재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여기에서 벗어나 정부 이외에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정부가 지니던 독점적인 역할을 탈피,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의 통치방식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 로 분권화를 요구하는 것이다(김석준 외, 2002; 김형성·임정빈 2016).

거버넌스는 아직 하나의 합의된 개념정의를 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Rhodes(1997)가 말한 “거버넌스는 정부가 변화하는 것을 암시하는 새로운 통치과정(process of governing)” 라고 판단된다. 이는 결국, 각국의 상황이 어떠하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과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의사결정하게 하는 것, 이에 더하여 시장과 시민사회가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관련된 제반의 조치” 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버넌스가 정의될 수 있다.

거버넌스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기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각 거버넌스의 조정기제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불리지만 종합해보면, 계층제(관료제)/시장/네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학자별 거버넌스 조정기제

	Pierre(2000), Beetham(1996)	Newman(2000), Stocker(2000)	Kooiman(2000)	Rhodes(1999), Kjaer(2004)	종합
관료제 시장 민주주의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계층제거버넌스 자기거버넌스 공동거버넌스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계층제(관료제) 시장 네트워크	

출처: 김석준 외, 2000: 56; 김형성·임정빈 2016: 145.

권기현(2007)은 조정기제에 따라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나누고 있다. 이후 전통적인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NGO)라는 3분법의 경계가 점차 희석되고 있고, 각 부문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기 보다는, 상호 간의 협력과 경쟁을 강조되면서 등장한 대안적인 논의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개념이다. 즉, 국가 중심적 관리주의와 시장 중심적 시장주의를 조화시키는 것을 강조한 개념이 신공공관리(NPM)이었다면, 뉴 거버넌스는 여기에 시민 중심적 거버넌스의 참여 및 네트워크 개념을 통합 지향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출처: 권기헌(2007: 232)

그림 1. 뉴거버넌스로의 통합

하지만, 조정기제의 변화, 즉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 궤적이 항상 계층제 →시장→네트워크의 순서로 진행된 것도, 하나의 특정 거버넌스가 다른 거버넌스를 배제하고 독점적위치를 차지한 적은 없다(Jordan et al., 2005).¹⁾ 다만, 모든 정치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시장과 네트워크가 계층제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층제 거버넌스를 舊거버넌스(old governance)로, 시장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²⁾를 새로운 거버넌스(new modes of governance)라고 지칭하기도 한다(Meuleman, 2006: 2; 유재원 · 이승모: 2008: 194에서 재인용).

특히,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행위자들 간 상호의존적관계의 관리로서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능력과 계층제의 의식적인 목표추구 활동의 결합으

1)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 궤적은 정치시스템이나 정책영역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특정 거버넌스 양식이 다른 거버넌스 양식을 완전히 밀어낸 채 행정 및 정책 공간을 독점한 적은 역사적으로 없으며 항상 세 가지 거버넌스 양식이 뒤섞인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Exworthy et al., 1999).

2) 한승준 외(2012)는 네트워크거버넌스를 정의하면서 정책학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정책네트워크와 연관된 정책 참여자들에 의한 민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라는 측면에서(Klijn, Koppenjan & Termeeer, 1995), 공공관리의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으며(Goldsmith & Eggers, 2004; Powell, 1990; Provan & Kenis, 2007), 무엇보다도 현재 공공-비영리-민간기업 영역 간 전통적인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고(Kjaer, 2004; Park, 2008; Rod & Paliwoda, 2003) 지적하고 있다.

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Mayntz, 1993).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법적 구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필요에 의하여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의 형태로 이루어진다(Jones, Hesterly & Bogartti, 1997: 914). 궁극적으로 자율적이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주의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정당성이 확보되게 된다(Pierre, 2000).

태권도지원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들 중 특정 조직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비영리-민간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리유형³⁾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리에 있어 핵심사항은 다양한 행위자들간 복잡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조정 또는 관리되는가의 문제이다. 네트워크도 전통조직과는 다르지만, 그 특성에 맞는 정확한 관리가 있어야만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의존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Agranoff & McGuire, 2003).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 특히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승준 외(2012)는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관리자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분석의 틀을 O' Toole과 Montjoy(1984)가 제시한 조직간 정책집행의 세 가지 구조 유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태권도지원 거버넌스를 각 유형에서 관리역할을 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자 유형(Provan & Kenis, 2007; Bryson, Crosby & Stone, 2006)을 살펴본다.

3) 한승준 외(2012: 262-265) 참조

O' Toole과 Montjoy(1984)는 Thomson(1967: 54-56)의 상호의존 및 조정 구조를 조직간 상호의존관계로 확장 발전시켜, 조직간 정책집행 구조를 연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순차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호혜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연합적 상호의존성은 공통된 목표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조직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호협조(cooperation)를 하여야 하는 어떠한 의무가 없기에 조직 간 조정에 대한 필요요건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O'Toole & Montjoy, 1984: 493). 이러한 집행구조에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는 직접 지원을 하는 a와 b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 기관들은 직접 집행을 하는 조직들에게 후원자(sponsor)로서, 상당한 위신(prestige)이나 권위를 가지고 희소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행위자로서, 일상적인 업무조정보다는 집행기관이 필요한 자원의 후원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Bryson, Crosby & Stone, 2006). 두 개 이상의 지원조직이 상호조율 없이 지원을 할 때, 각 조직이 지원하는 자원의 성격이 상이한 경우, 집행체계에 있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비슷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자원의 낭비 그리고 지원을 받는 집행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순차적 상호의존성의 경우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정책집행시 앞 조직의 산출물이 다음 조직의 투입이 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조직내, 특히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라인에서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다수의 조직이 관련되는 집행단계에 있어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단일의 기관과 다수의 잠재적 보조금 수혜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O'Toole과 Montjoy(1984)는 이러한 구조를 순차적/경쟁적 상호의존성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의존성아래에서 보조금 수

여기관은 모든 잠재적 수혜기관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고, 보조금 수여와 관련된 조건을 걸어 이에 상응하는 조직과만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일방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 단계에 해당되는 조직에서 지연이 발생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방식으로는 계획에 의한 조정(coordination by plan)-예를 들면 상호의존적인 조직들 간 명확한 스케줄 확정이 가장 적당하다(Thomson, 1967: 56).

이러한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집행체계에서는 a보다는 b수준에 있는 조직들이 실질적인 관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a조직은 정책지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만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거버넌스에서 조정역할을 전담하는 관리자(그림에서 b)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중범위 측면에서의 자원배분 및 업무역할의 조정 등을 수행하게 한다. 여기서 b조직들은 Provan과 Kenis(2007)가 논의한 NAO(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의 성격을 가진다. 즉 외부에서 도입되어 네트워크 내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 조정·관리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후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Bryson, Crosby & Stone, 2006).

마지막으로 호혜적 상호의존성은 두 개 이상의 조직이 정책집행 시작단계부터 실제 집행방식에 대하여 상호 협상(bargaining)을 한 뒤, 이들 간 상호조정(mutual adjustment)이라는 조정방식에 의하여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O' Toole & Montjoy, 1984; Thomson,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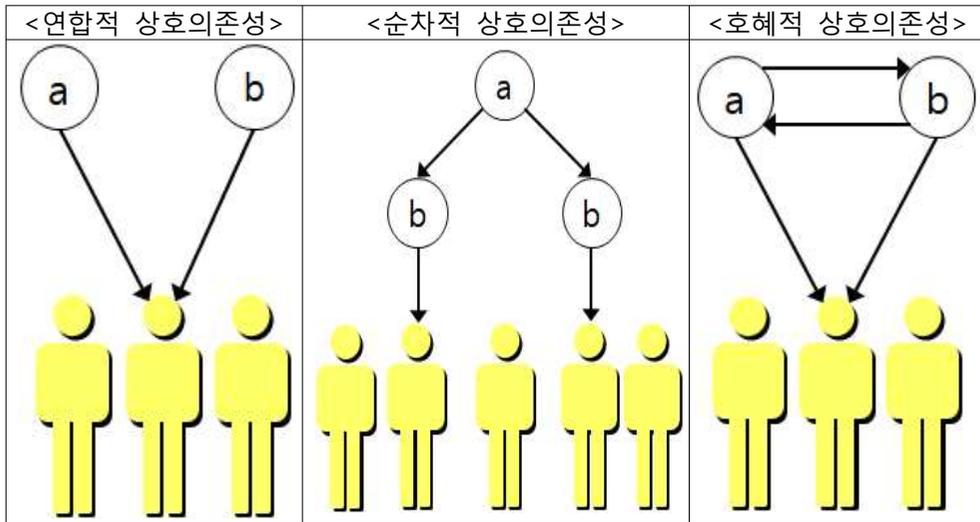
앞의 두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지원구조와 비교하여 호혜적 상호의존성에 따른 지원체계는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a와 b)간 실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관리역할을 할 것이다.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가지는 관리기관들의 경우, 실제 집행역할을 하지

않는 관리기관일 수도 있으며, 반면 실제 집행역할을 하는 조직들 중 리더역할을 하는 소수의 기관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주도기관; lead organization-governed, Provan & Kenis, 2007). 이러한 관리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영역 간 협력 관리자로서 선수(champion)⁴⁾의 역할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관리역할을 하는 이론적인 유형인 NAO와 주도기관은 내부와 외부관리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도기관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관계를 가지는 여러 조직들 중 하나가 리더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내부 관리자로 볼 수 있는 반면, NAO의 경우에는 집행을 맡고 있는 조직들 중 하나가 아니라, 외부에서 네트워크 관리만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태권도 관련 조직이 직접 관련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조직 간의 조정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태권도 내부에서 나타난 조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직접적인 태권도 관련 활동은 행하지 않고 다른 태권도 관련 조직들에게 다양한 지원 및 조정역할만을 하는 단체들의 경우 외부관리자로 볼 수 있다.

4) 선수는 실제 네트워크에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미시적인 수준에서 이들 간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Bryson, Crosby & Stone, 2006: 47).



주) ○ : 관리조직,  : 집행조직, \longrightarrow : 상호관계

출처 | O'Toole & Monjoy (1984: 493), 한승준 외(263-264).

그림 2. 관리조직 간 상호의존관계 따른 세 가지 정책집행 구조

2. 태권도 지원 인력, 재정, 정보, 지원 체계

1) 태권도 관련 주요 관계자

송형석(2017)은 단기간의 태권도 발전과 세계적 보급 성과는 태권도의 개방성 유지에 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태권도가 지녀왔던 그 ‘개방적 태도’가 태권도의 무예스포츠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태권도의 기술체계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의 다양한 발전의 구조가 태권도 기술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지원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기존조직의 기능분화에서 찾

지 못하고 조직을 새로이 설립하는 방식으로 다양성 진화에 대응해왔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태권도 조직들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주요사업의 증가 및 유사 사업의 증가 그리고 기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의 확대에 의한 예산의 낭비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태권도가 필수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본래 태권도와 무관한 영역들의 요소를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태권도는 음악, 에어로빅, 춤, 권투, 교육, 마케팅, 공연예술, 스포츠, K-Pop 등과 같이 무예와 무관한 영역들의 요소를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태권도는 다양한 변형들로 분화하게 되었다. 음악과 에어로빅 요소를 갖춘 태권도에어로빅, 음악과 춤의 요소를 갖춘 태권무, 권투의 요소를 갖춘 태보, 교육적 요소를 갖춘 도장 지도프로그램, 마케팅 요소를 갖춘 도장운영프로그램, 공연예술적 요소를 갖춘 태권도시범, 스포츠요소를 갖춘 올림픽스타일 태권도겨루기 등이 이와 같은 요소들을 자기화한 태권도의 변형들이다. 요즘에는 K-Tigers라는 단체를 통해 K-Pop과 결합된 태권도퍼포먼스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태권도는 무예라는 획일적 틀을 벗어 던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흡수함으로써 꾸준하게 변신을 시도해왔다. 이와 같은 태권도의 행보는 서구 사회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MMA(Mixed Martial Arts)라는 신종 무예의 출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출처: 송형석, 2017)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태권도는 전 세계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다른 무술들과 다르게 올림픽 무대 진출을 우선과제로 삼으면서 흔히 무예사에서 보이는 계파적 또는 분파적 발전을 지양하고 대한민국에 설립된 태권도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일관된 체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태권도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의 중점적 역할을 통해 설립된 태권도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기관별 설립 목적의 차이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첩 사업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구태의연한 논의를 반복하면서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권도

기관들이 일으킨 사업들과 그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향후에도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상징으로서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를 이끌 고가는 산업으로서 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관련 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1)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1973년 5월 28일 설립되었다. 본부는 대한민국 성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계 206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어 올림픽 스포츠종목에서는 전체 7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설립 이후 50년이 채 안되는 시간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김운용’이라는 스포츠외교분야의 탁월한 인재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크게 평가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세계태권도연맹이 태권도의 종주국 한국의 대한태권도협회와 차별성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현 ‘조정원’ 총재가 수장으로 이끌어가는 세계태권도연맹은 대한태권도연맹, 국기원과의 역할 및 기능적 분담을 명백히 하면서 전세계 태권도를 이끄는 중앙기관으로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의 경기 분야와 선수관리 올림픽종목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와의 관계 구성에 중점을 둔 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대한태권도협회(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61년 창립된 대한태수도협회를 전신으로하여 1차례의 개칭을 통하여 대한태권도협회 명칭을 1965년 이후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제강점기 이후 분파별로 상이한 형태의 태권도수련을 지양하고 일원화

된 한국의 고유무술로 재정립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구성되었다. 이후 흔히 일컫는 태권도 기간도장 9개 관(官)을 통합하고자 ‘국기원’을 새로이 설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한태권도협회는 한국의 태권도계를 대표하고 국내 태권도 경기분야와 선수 관리를 중심으로 국내 태권도장 활성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영역과 기능을 확대하여왔다.

(3) 국기원(Kukkiwon)

‘Center of Taekwondo’, ‘World Taekwondo Headquarters’로도 불리운다. 과거 기간도장들의 역할을 하나로 뭉쳐 탄생된 기관이기에 우선적으로 전세계 태권도의 승품, 단 심사를 관장하고 태권도 사범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가 주요사업이다. 이어 국기원은 우수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태권도의 학문적 연구를 진흥하는 국기원연구소를 하위기관으로 배치하고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4) 태권도진흥재단

현재 태권도원(Taekwondowon)으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그 사업영역을 확대 중에 있다. 태권도원이 지니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 유관기관들과 사업 및 역할, 기능 등에 있어서 논의의 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태권도 관련 프로그램 및 상품의 개발·보급, 태권도원을 세계적인 명소로의 개발육성, 태권도 진흥을 위한 모금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업 등 다각화된 사업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2) 태권도의 거버넌스 체계 분석

태권도는 송형석(2017)의 분석과 같이 다양성에 따라 성장하여왔다. 태권도는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로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을 조정하고 태권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회는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746호, 2007.12.21. 제정, 2008.6.22. 시행)」을 제정하였다. 여기 제4장 제19조(국기원)과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을 법에 명시하였다. 그간 민법으로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을 법에 명시하였다. 더불어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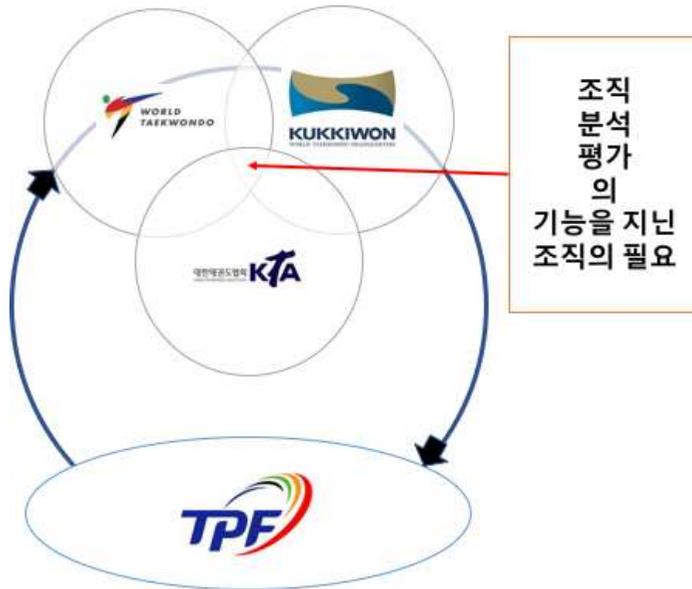


그림 3. 조직, 분석, 평가 관리 조직의 필요

이러한 법 제정 의도는 유추하면 두 기관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 틀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은 현재 연합적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림 3>과 같이 각 기관들이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 틀을 명확히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직 간 활동성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자 역할을 새로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Ⅲ.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1. 국제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위상과 체계

1)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현황

태권도는 208개국의 회원국이 상호 교류하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올림픽 스포츠 경기의 핵심 종목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생활체육으로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무예스포츠로서 세계인들의 큰 관심 속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국내에서 태권도가 여러 형태에서 정형화된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고 지금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수련되어 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태권도인들의 피와 땀이 한데 뭉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43개국	49개국	45개국	51개국	19개국

그림 4. 세계태권도연맹가맹국가 수

태권도는 세계적인 무예스포츠 종목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바라 볼 때 그 절차와 형태가 다른 종목들에 비하여 매우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태권도는 먼저 1975년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AISF)에 가입하고 1980년 7월 83차 IOC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조직을 인정 받았다. 이후 스

포츠경기로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기방식을 도입하여 태권도의 여러 기술체계 중 겨루기 경기가 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1988 서울올림픽과 전시종목으로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두 차례 치러졌다. 이어 1994년 9월 4일 파리에서는 IOC 103차 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되었다. 당시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필두로 한국의 스포츠 전문가들과 태권도인들의 화합이 이루어낸 결과로 평가 할만하다.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 과정에 대한 스포츠 외교활동 일화는 1981년의 1988 서울올림픽 유치확정의 배경 일화와 함께 국내 스포츠행정의 빛나는 역사로 자주 언급된다. 태권도는 이후 계속해서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 런던까지 정식종목으로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2009년 베를린에서 열린 IOC 회의에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확정되었다.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일본의 가라데와 함께 동양의 무예스포츠로서 정식종목 간 선의의 경쟁을 치러야 한다(세계태권도연맹, 2017).

이렇게 잘 성장해 온 태권도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IOC 총회에서의 정식종목 채택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태권도는 겨루기의 경기방식과 불합리한 심판판정, 흥미와 박진감 부족, 미디어 노출의 부재가 이유가 되어 정식종목 탈락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은 심판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호구 도입과 즉석비디오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판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8월 열린 제30회 런던올림픽에서는 판정시비 등의 문제가 이전 올림픽 경기대회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정국현, 김두한, 김하영, 2014).

2) 올림픽 운동의 실천과 태권도

태권도가 올림픽 운동을 선도하고자 하는 활동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제3세계 국가 및 저개발국에서의 태권도 보급 활동과 소수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국내외 태권도 관련 조직을 통해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인에 함께하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1)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의 활동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은 2009년 설립되어 36개국 146명의 봉사단 파견을 시작으로 2015년 43개국 236명의 봉사단 파견까지 활동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화봉사재단의 활동을 태권도 전공생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약한 측면이 있다.

재단의 활동 목표를 살펴보면 태권도 종주국으로 208개국과 함께하는 태권도 평화 봉사 시스템 구축, 다이나믹 코리아의 힘차고 역동적인 글로벌 봉사단 활동 지원, 태권도를 통한 국가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의 제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 태권도를 지구촌에 널리 홍보하여 인재와 자원의 발전 도모를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연계 및 협력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권도 용품지원과 국내외에서의 태권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림 5>은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 **태권도는 지구촌 선물**
사랑, 우정, 나눔, 봉사를 실천하여 인류 사회에 기여 ”



해외봉사 인재파견

- 해외파견 단기, 중장기 - 인재파견 및 국가간 활동
- 국내 단체 및 기관 협력 - 해외파견 위탁 운영 및 후원

지원

- 멘토링 시스템
- 해외파견 인재 및 지원 관리
- 해외 진로개척 일자리 창출
- 전공분야 세계화 개척

문화교류

- 해외 태권도 사범 및 태권도 문화 교류
- 한국 문화콘텐츠의 전파
- 태권도시범단, 한국무용, 음악이 어울어진 태권도 뮤지컬을 통해 한국문화 콘텐츠의 세계 전파

청년실업해소

- 인턴제 적용을 통한 실업해소 - 봉사기간을 인턴기간으로
- 봉사과 글로벌한 시간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

스포츠평화운동

- 스포츠 구제용품 기증운동
- 평화운동 인적, 물적 활용
- 국내 태권도평화봉사활동
- 해외 파견 후원 활동
- 국내 평화 봉사활동 공모전

단원활동

- 봉사단원 지킴이 결성
- 지원인력 인프라넷
- 국내 인재양성 및 국내 봉사활동 지원
- 태권도평화봉사단의 대학 동아리 결성 및 포상

출처: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홈페이지(2017)

그림 5.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의 주요 업무 소개

(2) 태권도박애재단의 활동

UN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세계적 기구이다. 2015년 UN에서 “세계 평화의날“ 이벤트를 시작으로 세계태권도연맹(WT)는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의 “과거 스포츠와 올림픽 운동을 통해 세계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국제 스포츠 연맹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앞서 지난 2008년 여름부터 태권도평화봉사단(Taekwondo Peace Corps)을 출범시켜 현재까지 약 100여 개국 이상에 1천300여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해온 성과는 있었지만 단순히 봉사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성화하려고 도모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나아가 태권도 시범과 교육 이외에 의료 봉사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 봉사단 이외에 박애재단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즉 과거처럼 간접적인 태권도 전파의 역할을 넘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이자 모임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태권도박애재단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산하 조직으로서 2016년 1월 31일 네팔 지진피해 복구에 도움을 활동의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태권도박애재단은 태권도 시범의 전 세계 난민촌 파견, 태권도 시범단 운용, 태권도 아카데미 설치 등을 통해 난민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 특히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과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서의 난민국가 자격자 선수의 출전을 지원한 것은 태권도박애재단 활동의 지향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태권도박애재단이 밝히는 조직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의 스포츠와 무술에서 그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피난민과 실항민들에게 자생 재기의 힘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둘째, 올림픽과 글로

별 시민 정신의 가치를 가르치는 필요한 장비, 인프라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셋째, 난민촌의 삶의 질과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미래 전망을 향상시킨다. 넷째, 세계태권도연맹(WT)가 국제 연맹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세계태권도연맹(WT) 회원들과 클럽들에게 태권도박애재단 프로그램에 기부하거나 자원 봉사함으로써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국제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위기와 문제점

1) 올림픽 스포츠 지위의 지속

앞으로도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경기 내·외적으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열쇠는 태권도의 모국 한국이 세계와 협력하는 태권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 태권도의 무소불위 강국으로서 대회집행, 진행, 심판, 경기내용, 경기력 등 모든 부분에서 권한을 발휘하고 월등한 실력을 보여 여타 다른 국가들이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한국 스스로가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스포츠 태권도 경기 조직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그동안 한국의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 출신들이 꾸준히 해외지도자로 파견되고 국가 간 태권도 정보교류 및 팀 간 교류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체육 조직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운영하였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과거 한국 외에 특별한 강국을 찾아보기 힘들던 국제 태권도경기의 판도는 변화하였다.

특히 지난 매우 뚜렷한 양상을 보인 제30회 런던올림픽은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네 번째 대회로서 한국은 남녀 각 2개 체급씩 총 4체급에 출전해 여자부 금메달 1개와 남자부 은메달 1개를 획득하였다. 태권도의 종주국 한국으로서는 역대 네 번의 올림픽 출전 사상 최악의 성적이었다. 메달 집계를 중심으로 성과를 확인해 보면 스페인과 중국에 이어 터키와 종합 3위의 성적이었다.

표 2. 올림픽대회 경기결과

올림픽대회	참가국 수	참가선수 수	메달 수	메달 획득 국가	참가국수 대비 메달획득 국가비율
2000 시드니	51	103	24	18개국 (한국, 쿠바, 중국, 미국, 호주, 그리스, 러시아, 노르웨이, 독일, 베트남,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일본, 이란, 터키, 대만)	35%
2004 아테네	60	124	24	13개국 (한국, 쿠바,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집트, 멕시코, 프랑스, 이란, 터키, 대만)	22%
2008 베이징	64	128	32	22개국 (중국, 태국, 베네수엘라, 쿠바, 한국, 터키, 크로아티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브라질, 도미니카, 아프가니스탄, 대만, 이란, 이탈리아, 그리스,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34%
2012 런던	63	128	32	21개국 (가봉, 대만,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세르비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영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콜롬비아, 쿠바, 크로아티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한국)	33%
2016 리우	64	129	32	20개국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태국, 영국, 스페인, 이집트, 이란, 프랑스, 코트디부아르, 터키, 중국, 멕시코, 미국, 도미니카, 요르단, 러시아, 튀니지, 나이지리아, 브라질, 한국)	33%

출처: 세계태권도연맹. <http://www.wtf.org> (2017)

런던올림픽의 태권도 경기 결과를 분석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꾸준히 다수 국가의 메달확보가 가능할 정도로 경기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며 심지어 아프리카의 가봉과 같이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등 태권도를 통해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메달을 획득하는 국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표면상으로 태권도는 올림픽에서 꾸준한 성장세와 차별성 있는 경기력을 확보하면서 정식종목으로서의 면모를 다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배경에 의해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지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반면에 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6>와 <그림 7>은 이를 도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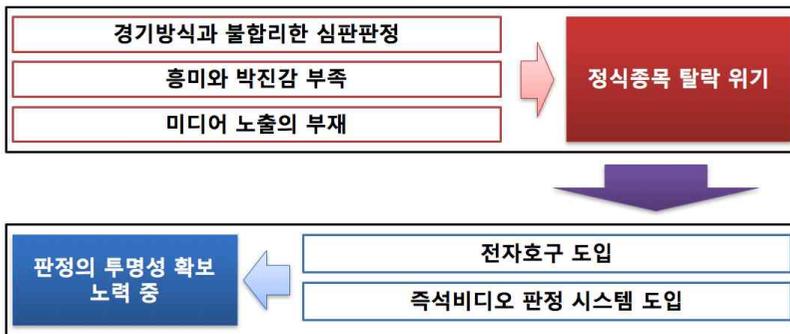


그림 6. 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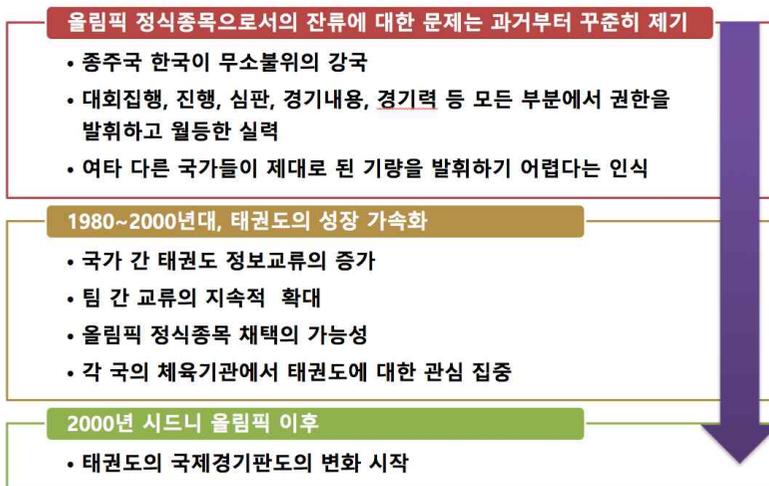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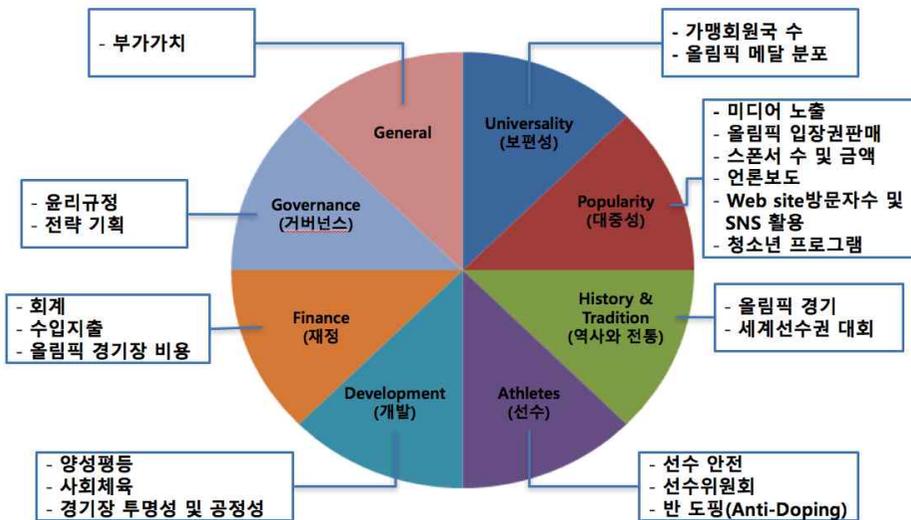


그림 7. 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성장

성황리에 런던올림픽과 리우올림픽을 치러낸 이 시점에도 태권도의 정식종목 잔류에 대한 불안이 왜 세계 태권도계에 팽배한 것인가? 그것은 IOC가 밝히는 올림픽 종목 결정 평가 항목에 대하여 태권도가 미흡한 대응력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에서 유사 무술종목들의 견제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태권도가 취약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미디어 노출과 스폰서십과 관련된 대중성(popularity), 경기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발(development of IF/sport), 윤리규정 및 전략기획과 관련한 거버넌스(governance), 선수안전 및 반도핑에 관련한 선수(athletes)항목 등이다. IOC는 이와 관련하여 8개 분야 74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의 태권도는 중점화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세계태권도연맹 내부자료(2012)

그림 8. 올림픽 종목 주요 평가 항목

8개 평가항목 중 보편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인 가맹 회원국 수 집계에 있어서는 총 208개국으로 규모적인 면에서 IOC회원국 수와 대등하며 하계 올림픽 참가종목 경기연맹 중, 7위에 해당하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 관련 공식 국제경기는 국제챔피언십 6개, 대륙별 대회 5개, 국제 종합스포츠 경기대회 18개 등, 여타 올림픽의 인기종목과 같이 여러 종류의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글로벌한 스포츠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IOC 총회에서 올림픽 영구종목 잔류이나 퇴출이냐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IOC가 태권도라는 무도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 국제태권도연맹(ITF)과의 관계

국내에서는 일명 북한의 태권도라 불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중심의 태권도는 세계태권도연맹(WT) 태권도와 그동안 대립의 관계를 이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립을 해야 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대상으로 국내의 태권도계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는 어느 한 쪽의 힘의 논리에 기울어 흡수되는 형태가 아닌 우호적 관계개선이 선행된 전략적인 통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OC에 속하는 스포츠종목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순수한 목적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의 경우 현재 IOC의 올림픽 종목임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두 연맹으로 나누어져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경기방식 등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의 이미지는 IOC위원들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 잔류하는데 문제가 된다. 또한 북한을 중

심으로 한 ITF의 총재가 현재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장웅 위원이라는 점이 세계태권도연맹에게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스포츠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치적 현상과 환경에서 벗어나 태권도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스포츠 외교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3) 유사 무예 스포츠와의 관계 및 차별성 강화

태권도의 세계적인 보급력 확보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아시아의 맹주 국가들 중 하나인 중국과 일본은 그들의 전통 무술인 우슈와 가라테를 올림픽 종목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어온 과정을 본 삼아 스포츠 형태의 경기 방식을 고안하고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빈번하게 경기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 및 무술 문화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대하게 견제해야 할 것은 중국과 일본이 세계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이 우리보다 앞선 강대국이라는 점이다.

이에 국제스포츠무대에서 두 종목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IOC의 정책에 부응하고 태권도를 통한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IOC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현재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세계태권도연맹(WT)의 협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활동하는 태권도평화봉사단과 같은 공익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물론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보급 및 발전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에서 양성되고 있는 우수한 사범들을 제3세계 국가 등 태권도 보급이 아직 미흡한 국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이다.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해외사범 파견 제도는 파견된 국가의 경제사정에 따라 파견사범의 생활환경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하여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3세계 국가 및 저개발 국가의 해외파견 지원자는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기업을 확보한 세계태권도연맹(WT)이 제원을 마련한 뒤 제3세계 국가 및 저개발 국가에 사범 및 지도자를 파견하고 전적으로 그들을 생활 환경 및 임금을 한국 실정의 사정에 맞게 책임져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외파견 사범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가 이러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극명하다. 현재 IOC와 직접적으로 영향관계 있어 세계태권도연맹(WT)의 국제적 사업이 IOC의 태권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양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 스포츠 기술적인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 세계인과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 초월하여 올림픽정신을 실천하는 스포츠임을 강조하는 것이 올림픽운동의 가치실현과 함께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으로서 영구히 지속되어야하는 스포츠임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IV. 국기 무예로서의 태권도

1. 국기 무예로서의 태권도 위상과 체계

1) 국내외 태권도의 보급 현황

국내외의 각종 태권도 관련단체에서 추산하는 전 세계적 태권도 수련인구는 8,000만 여명이다.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는 미흡하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 9>를 통하여 유품자 이상의 인구가 1천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급부터 1급까지 9단계로 구분되는 유급자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유품, 유단자 숫자에 비례하여 추정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급자 통계가 미약하다는 측면에서부터 태권도를 세계화 하는데 정확한 전략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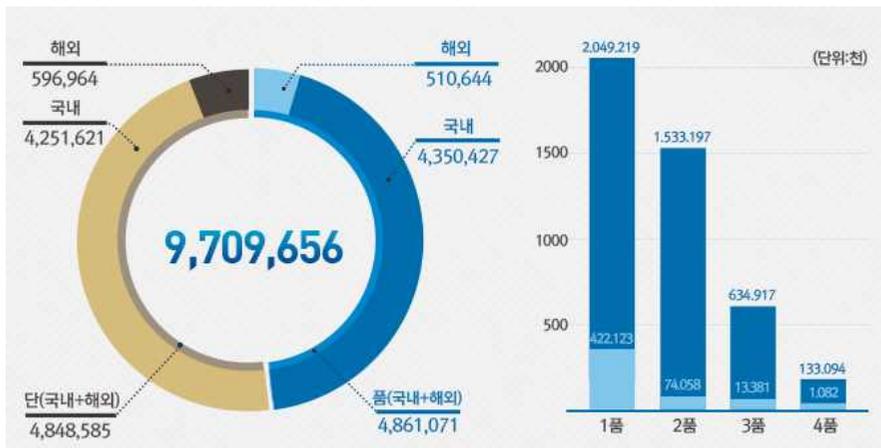


그림 9. 국기원 등록 품, 단 현황(출처: 국기원, 2017)

다음으로 <그림 10>에 따르면 1품, 단에서 2품, 단으로 승품, 단이 정확

히 일치하지 않음을 미루어 볼 때 태권도 수련 시작 1년 이후 이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태권도 지도자들의 숙제로 남아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1품, 단에서 2품, 단으로 승품, 단 유지자 감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태권도 세계화 전략 과제에서 태권도 수련 유경험자의 수련 지속에 대한 전략적 방안의 도출이 매우 시급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사범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4단 승단 단계에서 급격이 감가율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4단 부터는 태권도 지도자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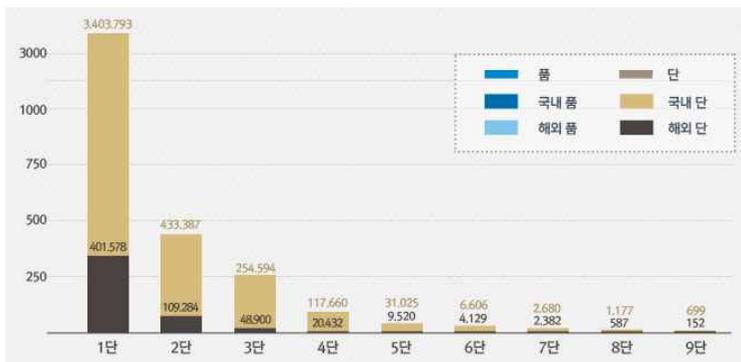


그림 10. 국기원 등록 품, 단 개별 현황(출처: 국기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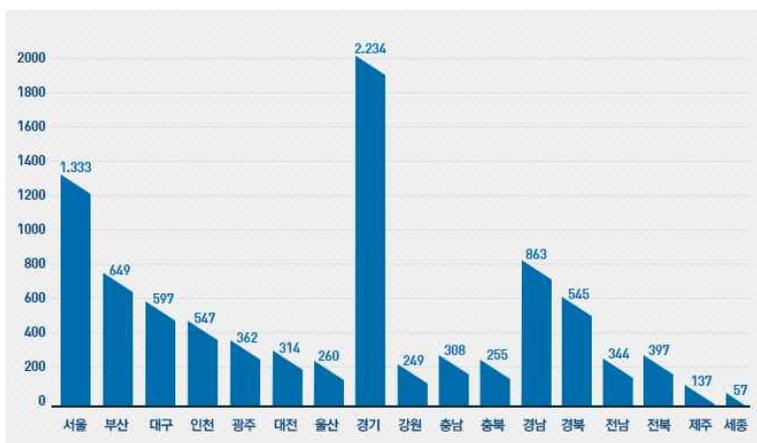


그림 11. 국기원 국내 등록 도장 현황(출처: 국기원, 2017)

<그림 11>은 국기원 국내 등록 태권도장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림 12>는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 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구 수와 태권도장의 수가 비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역 발전 및 경제적 불균형과 같이 태권도 수련 경험 및 태권도 문화 환경에 대한 경험의 불균형을 발생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유소년 태권도 수련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태권도장 중심 수련환경에서는 노령층이 많은 농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태권도 문화를 접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할 때 중요한 것은 대중들에게 태권도 수련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접근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행정기관	2017년 02월	
	총인구수	세대수
전국	51,712,221	21,352,287
서울특별시	9,931,412	4,200,761
부산광역시	3,495,478	1,454,891
대구광역시	2,484,578	997,275
인천광역시	2,944,266	1,174,178
광주광역시	1,468,527	587,518
대전광역시	1,513,877	608,763
울산광역시	1,169,957	455,624
세종특별자치시	247,600	95,975
경기도	12,741,266	5,022,352
강원도	1,548,252	692,316
충청북도	1,592,001	682,752
충청남도	2,099,924	905,985
전라북도	1,861,955	791,101
전라남도	1,900,797	843,198
경상북도	2,696,329	1,182,192
경상남도	3,372,266	1,388,737
제주특별자치도	643,736	268,669

그림 12. 국내 지역별 인구 수(출처: 통계청, 2017)

2) 태권도 수련 및 교육의 문제

태권도는 무예이며 스포츠이다. 이 두 가지를 논하는 측면에서 태권도가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에는 시대가 변화하여도 태권도가 무예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권도가 무예로서의 특성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예가 지닌 과거의 특성과 현재의 태권도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3. 과거의 무예와 현대 태권도의 특성 비교

구분	전통적 무예	현대적 태권도
수련 목적	호신, 전투	경기, 교육, 생활체육
수련 방법	도제식	교사, 학생 간 (코치, 선수)
수련 형식	소수 정예	불특정 다수
수련자 개인의 목표	심신 단련	심신단련, 인성, 예절
수련 계층	불특정 또는 군사	유소년 및 전문 선수

<표 3>이 의미하는 것은 태권도가 현대사회 환경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하여도 개인의 수련 목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것은 태권도를 주로 수련하는 연령계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태권도를 활성화하고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효과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3) 태권도 연관 산업의 활성화 문제

지난 2016년 6월 국회의원 회관에 열린 세계태권도산업포럼 창립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태권도산업 활성화 13 과제를 제안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통합 CI&브랜딩 개발, 캐릭터공모전 소프트웨어 테마파크 조성, 태권도공연물제작, 태권도 디지털박물관, 태권도 애니메이션, 태권도 웹예능 제작, 태권도 웹드라마 제작, 창작만화 동화, 다국어 출판물 지원, 태권도 머천다이징, 태권도 모바일 게임 등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태권도의 보급형태를 중심으로 구조화할 때 태권도 산업은 태권도 보급의 최일선인 태권도장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구성해야하는 제한점이 따른다 이러한 태권도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김종헌(2007)은 태권도산업의 구조 모델을 다음 <그림 13>과 같이 제시하였다.

김종헌(2007)의 연구에서 보여 지는 특징은 다시 말해 태권도산업은 태권도 수련인구의 확장에 기인하므로 태권도 수련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와 수련생을 중심으로 상호관련성을 지닌 영역을 연결하여 태권도산업을 구조화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연계산업을 나열한 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의 범위와 같이하여 태권도산업을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의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태권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분류체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영역이 지속적으로 개발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로서 평가할 수 있다.

김종헌(2007)의 태권도산업분류에 따르면 현재 태권도장업과 태권도 경기의 발전으로 태권도시설업 및 태권도용품업은 사업적으로 안정기 또는

성숙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태권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권도서비스업의 발전이 절실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콘텐츠” 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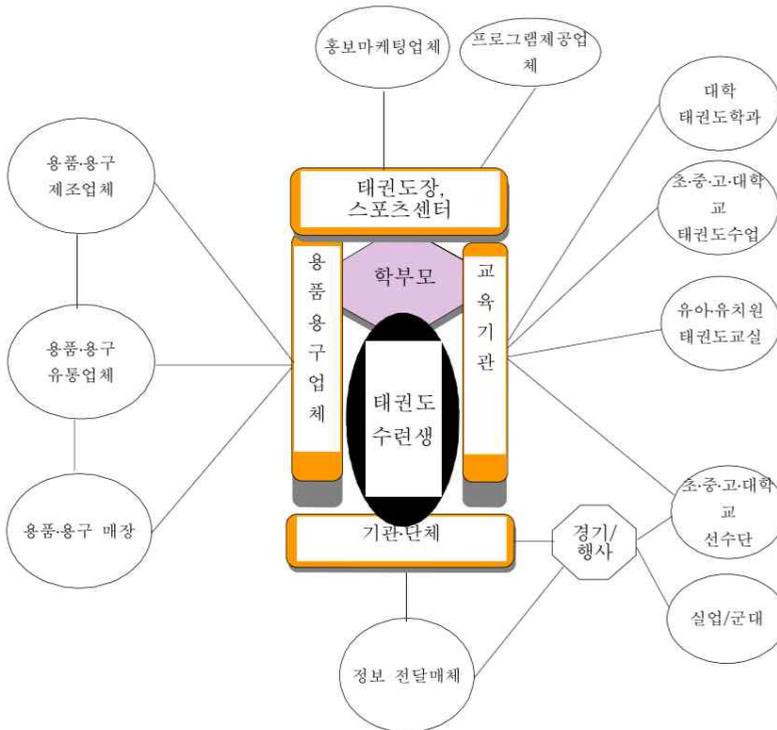


그림 13. 태권도산업의 구조 모델. 김중헌(2007).

태권도가 콘텐츠로서 부가가치를 지니며 이를 산업으로서 발전시키는데 정책적으로 국기원, 태권도원, 정부 및 국내 각 태권도학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재돈(2014)이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세계 속의 한류 문화

콘텐츠의 흥행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상징으로써 한 축을 인정받고 있는 태권도가 창조경제시대에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태권도가 산업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수 있는 자원을 지니는 것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의 전초적 역할을 하고 있는 “태권도장”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태권도장을 지탱하는 우수한 지도자를 국내 각 대학교에서 태권도 전공 학문을 통하여 배출하고 있어서 이다.

2. 국기 무예로서의 태권도의 위기와 문제점

1) 태권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문제

태권도원 건립 및 세부 사업의 시행함과 함께 2014년 7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제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림 14. 태권도 진흥 기본 계획 (출처: 국기원, 2017)

약칭 ‘태권도법’으로 불리워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주로 태권도원과 관계 기관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면 국내외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태권도 관계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선에 그치고 있어 해당 법률에 의해 지원 받는 관계 조직을 통해 국내 태권도인과 태권도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권도법’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국기 무예 태권도 지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 되어야할 정책적 관전에서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첫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필요
- 둘째, 태권도 지도자의 세대별 화합 필요
- 셋째, 태권도장 및 태권도 보편화를 위한 지원책 강화의 필요
- 넷째, 태권도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화의 필요

최근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태권도의 명품 콘텐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특히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을 확장하여 과거와 같이 외연을 키우는 정책에서 내실을 다지는 정책과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태권도 지도자 고용 활성화 문제

태권도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태권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덕현과 곽낙현은 <그림 12>와 같은 도식 설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덕현과 곽낙현(2017)이 규명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의 전략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와 <표 5>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태권도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출처: 남덕현, 곽낙현, 2015)

그림 15. 정부 조직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체계

태권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태권도

는 한국이 발생국이며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이다. 지도자 배출과 프로그램 선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태권도 보급과 성장 지속에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과 여러 태권도 관련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출되는 지도자가 직업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태권도 주요 4대 기관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 아래 다양한 사업과 기관 내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성과가 태권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산업적 바탕 역할을 하는 태권도인과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 창출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예산 및 관련 조직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표 4. 민간 인력 중심 태권도 일자리 창출의 과제

구분		내용구성
민 간 인 력	태권도관광·ODA 인력양성	●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개발, 인력 지원 방안 수립 (국기원)
		● 태권도 지도 공간 및 숙소 정비 인력 확보 (태권도원)
		● 태권도 해외 파견 지도자 인턴과정 운영 지원 (인재육성재단, 문체부)
		● 해외 정부 기관과 국내 유관 부처 간 허브·조정 역할 (외교부)
	한국학 연계 태권도 교육인력 양성	● 한국학 사업에 태권도 전문 연구 및 인력 영역 확대 (한국학중앙연구원)
		● 외국인 대상 태권도 현장 체험 지도자 확보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 해외 정부 기관과 국내 유관 부처 간 허브·조정 역할 (외교부)
		● KOICA 건립 한국 학교 내 태권도 지도자 운영 (KOICA, 국기원)

(출처: 남덕현, 곽낙현, 2017)

표 5. 군 인력 중심 태권도 일자리 창출의 과제

구분		내용구성
군 인 력	해외 사관학교 교관 파견 인력	• 군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수립 (국방부, 국기원)
		• 우수 군 태권도 지도 자원에 대한 국기원 특채 부여(국방부, 국기원)
		• 군내 태권도 유단자 활용 간부 가용 인력 관리 체계화(각군본부)
		• 파견 장교와 부사관에 태권도 부특기 부여 진급 인센티브 부여(국방부)
	해외파병 태권도교육 인력 양성	•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수립(국방부, 국기원)
		• 해외 파병 시 군 태권도 인력 태권도 부특기 인센티브, 부여(각군본부)
		• 국방무관을 통한 군 태권도 파견 실태 분석 파병 시 참고 (국방부)
		• 해외 태권도 교육 전담 특기병 제도 신설(병무청, 각군본부)

(출처: 남덕현, 곽낙현, 2017)

V. 지속가능한 태권도 발전 방안

1.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의 활성화와 세계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태권도 관련기관의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태권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조정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국내 태권도 진흥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각각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키워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일방적인 통합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영역을 발전시키되 중복되어 비능률이 발생하는 부분을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 태권도관련 기관의 거버넌스 방향성을 실질적인 총괄·조정기제를 통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과성의 달성에 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 조정기제를 네트워크에 둔다.

다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태권도법」 제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간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도모하고 국내 태권도 단체 간 상생적 거버넌스 틀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는 조직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Fleishman(2009)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조직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종합하였다(김동신, 2012: 37; 문경영·김형성, 2016에서 재인용). 첫째, 조직들이 네트워크 거

버넌스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는 자원의존과 자원 교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Van de Ven et al., 1975; Levine and White, 1961; Alter and Hage, 1993; Kickert et.al., 1997; Ostrom, 1990). 개별적 조직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에 의존하기 위하여 개별적 조직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한다(Van de Ven ET AL., 1975).

둘째, 조직들 간에 공유된 목적이나 신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Gray, 1989; Rogers and Whetten, 1982, Aldrich, 1979; Sabatier, 1993). 목적이나 신념이 유사하거나 같은 개별적 조직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셋째, 조직경제학적인 관점에서부터 나오는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한다(Williamson, 1994). 개별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전문성과 같은 자원들을 교환할 때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것은 개별조직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넷째, 정치적 이해관계이다(Hecllo, 1978; Kim and Lee, 2010). 재선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는 개별행위자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라고 주장된다(Kim & Lee, 2010). 또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조직 정책들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조직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하기도 한다(Fleishman, 2009).

마지막으로 다섯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개별적인 조직들이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조직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Agranoff and McGuire, 2001; Bardach, 1998). 즉, 네트워크의 촉매자의 존재는 조직 간에 정보의 매개자, 업무의 분할과 자원의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촉매자가 존재는 조직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위의 다섯 가지 참여동기를 바탕으로 태권도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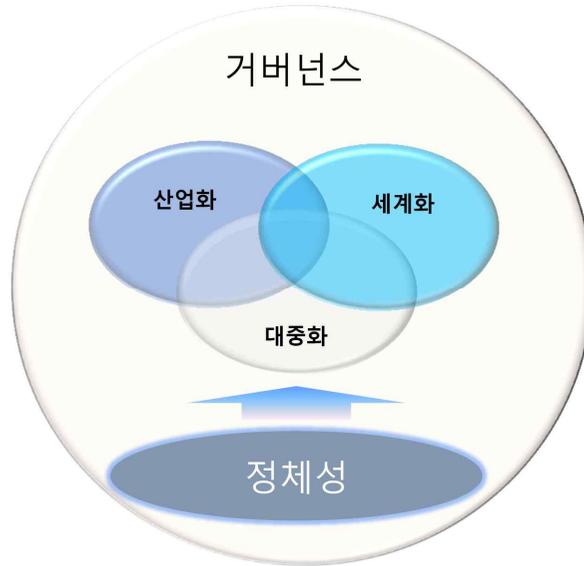


그림 16. 태권도 세계화의 구조 제안

가장 먼저 첫 번째, 조직들 간에 공유된 목적이나 신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태권도 관련 4대 단체의 생성 목적이나 기능상 그 차이는 인정된다. 하지만, 4대 단체 간 태권도의 활성화와 세계화에 대한 신념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유된 목적이나 신념 즉 태권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의 경우,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관의 목적이 있으며, 국제 태권도 연맹과의 연계를 위하여 국내 태권도와는 어느 정도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태권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두 단체인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조정의 역할에서 어느 곳에 더 권한을 분배

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자원의존 및 교환 동기에서는 현재 예산조정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태권도 관련사업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은 국기원, 태권도재단, 대한태권도협회에 배정되고 있다. 사실 정부와 각 조직(부처, 공공기관, 민간)간에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누가 재정을 부담하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인가는 자원의 의존과 교환을 통한 조직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에 대한 합리적 조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정메커니즘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느 한 단체의 예산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4대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네 번째, 거래비용 감소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행정)관리체계의 합리적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조직의 조직과 인력은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있고, 각 조직의 서비스 전달 방식, 즉 서비스를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수혜 받는 수혜자에 전달하는데,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조직 간의 정보 혹은 전문인력 등의 자원 교환의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개별조직과 연결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간 관계설정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각 각 중복되어 있는 기능과 사업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인력, 정보, 기술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4대 단체가 공히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의 다양한 동기에서 촉진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표 6.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참여동기, 현황, 개선방향

참여동기	현황	개선방향
공유된 목적과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과 신념은 공유 • 기능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능이 중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한 공유된 신념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정치적 이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태권도연맹의 경우, 국제태권도 연맹과의 관계 설정에 치중 •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태권도 연맹의 니즈를 파악 - 인력, 정보, 기술 등이 막힘 없이 흐르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자원의존 및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배분 조정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원과 태권도 진흥재단 간 기능 조정 및 합리적인 예산배분 구조 도출 - 예를 들면, 태권도 진흥을 위한 예산협의회를 구축하여 각 단체,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민간전문가등이 합리적인 예산 배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한 촉매자 역할을 담당할 기관을 사무국으로 하고 동 기관은 태권도관련 사업 태권도와 관련된 연구·조사·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지원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거래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기능의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음(행정)관리 체계 	
촉매자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진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연합적 상호의존성을 보임 	

2. 태권도 조직별 현안과 과제

1) 태권도 4대 조직의 기능 분석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세계화 전략을 구조화 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외 태권도 문제점 고찰과 함께 태권도 4대 기관의 기능을 재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태권도 4대 조직의 기능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7>에 따르면 태권도 4대 조직이 각 조직의 성격에 따라 중심기능 및 특성화된 기능은 매우 명확하다. 그러나 문제는 태권도의 양적 및 질적 규모의 발전에 따라 확장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에서 태권도계의 국내외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태권도가 현재의 형태적 규모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수익성 모델은 공연 및 경기 콘텐츠이다. 그리고 우수한 한국인 사범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상품 및 서비스를 저마다 조직의 목표에 맞게 재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유사하고 결과적으로 태권도의 다양한 분야에 분배되어야 할 소중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소모되고 있는 형국이다. 조직별 기능 분석에 따르면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는 각각 국제경기 기획 관리 감독, 그리고 국내경기 기획,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국기원은 태권도 관련 교육 및 연수 실시 및 방법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태권도원 사업을 중심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세계인에게 대중성 있는 콘텐츠로 인식시키기 위한 이벤트 및 관광 상품의 기획 및 태권도 성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WT	국기원	TPF	KTA
기본기능	국제 경기의 주최 주관	승품단심사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	국내 경기의 주최 주관
	국가별 협회 관리 감독	지도자 교육 연수	태권도 진흥사업	시도 지부 협회 관리 감독
	지도자, 선수 및 심판 관리 감독	연구	교육, 수련, 교육 네트워크	지도자, 선수 및 심판 관리 감독
	올림픽 대응 경기 전략	해외 지도자 파견	태권도문화 중심지 조성	대표 선수 선발 및 국제경기지원
확장사업	올림픽 무브먼트 대응 운동	시범단 육성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도장 지원 사업
	기술체계의 확장	공연 이벤트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	태권도 관련 조사 통계
	대중화 이벤트 개발 실행	관광상품개발	경연대회	태권도 경기 기술 연구 및 향상
		세계태권도한마당	태권도원 관광상품개발	태권도 홍보 계몽
중심기능	올림픽 무브먼트 대응 전략 기획	교육 및 연수	태권도 보급 운동	도장 지원 사업
	국제 경기 관련 기획 및 관리	심사	태권도 중심 문화체험	태권도 관련 조사 통계
	올림픽 태권도 경기 개선	연구개발	태권도 성지	태권도 경기 기술 연구 및 향상
중심기능조정	올림픽 무브먼트 대응 운동	수련 및 지도 메뉴얼 개발	대중화 이벤트 기획 실행	국내 경기 주최 주관
	대륙-국가별 조직 감독기능 강화	연구소 기능 강화	문화예술 연계 관광상품개발	국내 지도자, 선수, 심판 관리감독
	국제경기 주최주관 중심기능 강화	심사권 단일화	태권도 성지화 사업 추진 지속	태권도 클럽화 준비
		기술체계 연구개발		국내 태권도 보급 홍보
		태권도산업기술 연구		
		태권도장 지원		
특성화	국제경기 기획관리감독	교육, 연수	태권도 성지	국내경기 기획관리감독
		연구소 독립 기관화		신개발 기술체계 Test-bed

그림 17. 태권도 4대 조직의 기능 분석

이 중 국기원의 경우 하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태권도 연구소에 대한 기능적 분화를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안은 다음 절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2) 국내외 태권도 현안에 따른 개선방안

앞서 태권도 4대 조직별 기능 분석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안을 구체화 해보았다. 내용적 측면에서 태권도장, 교육·수련·연수, 이벤트, 연구 및 정책, 세계화 등 5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그림 18>에 나타나 있다.

(1) 태권도장 범주의 현안과 개선 방향

태권도 보급의 최일선에서 전초적 기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태권도장 운영측면에서 태권도장 사범 지도자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심사권의 운영 형태 특성으로 인하여 태권도장 협회 등록 문제가 맞물려 나타나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외 태권도 관련 조직들의 규모와 기능에 비해 실질적인 태권도장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심사권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다. 즉 첫째, 국기원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국기원 연락과 또는 담당관 형태의 사무관을 시도 협회 및 구지협회로 파견하여 국기원과 관계된 태권도장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안	문제점	개선 방향
태권도장	심사권 관리의 국기원 일원화	지부협회 지도자의 심사 관여	국기원 감독관 파견
	도장 지원 체계 미흡	대태협 및 지부 협회별 일관성 없는 사업	시도 및 구지협회 국기원 사무관 배치
	정보 부족	승품단 관련 행정체계만 존재	지도자 활용 가능 온라인데이터베이스 강화
교육수련	기본 교본만 존재	현장 적용 매뉴얼 부족	교육 트렌드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지도자 자격자 지속 배출	자격증 보유 중심의 자격제도	자격 시험 내용 및 관리의 강화
	인성 교육 트렌드 반영의 미흡	개별 도장 자체 개발, 검증 미흡	연구소의 교육 매뉴얼 직접개발 및 현장적용
이벤트	협회 및 조직별 경기의 과다	지역도장의 대회 참여의 어려움	도장의 통합화 고려, 조직별 특성별 대회 정보 공유의 장 보완
	시범단수의 지속 증가	공연 비즈니스 체계의 미완성	국립 시범단설립 재검토
	태권도의 대중화	비련인구의 접근성 부족	태권도 문화 거점 지역 지원
연구 및 정책	연구 성과의 보급 미흡	현장 적용이 미흡한 연구성과 적체	연구성과를 자료로 출판하여 홍보
	미래 산업 준비 부족	현 트렌드 대응에도 미흡	연구소의 독립 및 기능 강화
	도장 운영 관련 정책 대응 미흡	태권도장 운영 현장에 혼선이 가중	정부 정책 대응 전담 부서 운영
세계화	해외 도장 교류 미흡	우수 도장의 프로그램 일방적 역수입	국기원에서의 해외 우수도장 연구팀 운영
	해외 우수 지도자 교류 미흡	국내 문화와 교류의 어려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우수 지도자 교육 채널
	해외 도장에서 아동체육화 흐름	이종무술의 현대화에 비하여 태권도의 기술적 퇴보	공연예술기획 및 프로태권도 설립

그림 18. 국내외 태권도 현안에 따른 개선방안

<그림 19>는 심사 권한과 비용의 흐름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일선 태권도장의 지도자들은 구지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승품단 심사에서 심사의 진행은 이미 지역 도장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봉사하고 있으므로 시도협회 또는 구지협회가 관립감독 진행을 이유로 심사권으로 발생하는 주종의 관계를 가지면 안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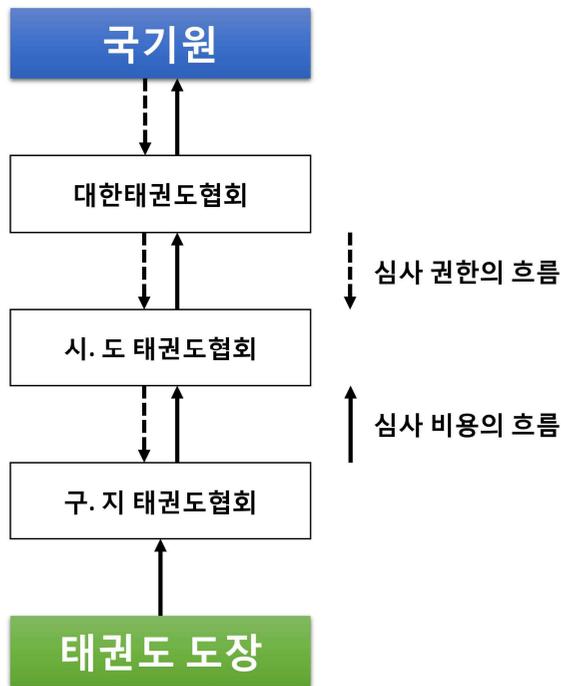


그림 19. 심사 권한과 비용의 흐름

이로 인해 비용적 부담도 커지고 조직의 하향식 다단계화로 인해 심사의 진행에서 내용적인 불필요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태권도장 및 사범지도자 그리고 수련자를 회원으로 두고 여러 활동을 진행하는 지역 협회의 경우 각종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심사비에서도 충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사권에 대한 변화의 제안이 지역협회의 활동력을 제한

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회별 국기원 사무관 배치를 통한 지역도장의 자율적 심사 진행으로 인해 모인 경제적 이득을 자연스럽게 지역 협회를 분배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는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가며 타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수련·연수 범주의 현안과 개선 방향

교육·수련·연수 범주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현대적인 태권도 발전 반세기동안 지도자 및 수련자에게 보급되고 일반화된 프로그램은 태권도 교본이 전부라는 것이다. 교본은 기본이다. 태권도의 기술체계 중 태권도를 효과적으로 수련하기 위해 급, 품, 단 별로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술의 최소를 의미한다. 즉 태권도의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한 시점에서 수련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의 보편화와 태권도 교수학습법이 개발 되는 것이 미흡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태권도가 아동체육 또는 학교체육으로 폼하되고 있음에도 교육적 가치의 우수성이 수련 현장에서 검증되어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가치가 더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태권도의 교육 및 수련 방법이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태권도 지도자가 국내 대학 내 전공학과를 통해 교육되고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환경에서 태권도 단증 및 사범지도자 자격의 검증과 수준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이벤트 범주의 현안과 개선 방향

이벤트 범주에서 주목되는 현안은 수련자 수에 비해 경기 이벤트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중소규모의 시범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주요 문제 모두 태권도의 현재 수익성에 비해 과도한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타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설 태권도장과 함께 지역 태권도 클럽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태권도를 전 연령층에 보급하고 태권도 수련 인구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수익 사업성이 중요시되는 사설 태권도장보다 비역 클럽형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시범단의 경우 태권도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다만 국내외 태권도 수련자 및 일반 대중이 호응하고 함께 성장 시킬 수 있는 대표적 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태권도와 세계인의 태권도를 상징할 수 있는 조직이 올림픽 태권도 스타만큼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국립시범단 설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연구 및 정책 범주의 현안과 개선 방향

연구 및 정책 범주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사범의 고용안정성 미흡과 도장 운영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한 미흡함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었다.

향후 태권도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자본력을 지닌 기업의 태권도에 대한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 태권도 산업이 미래 발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수련 및 지도자 보급 인구의 확보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욱 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소비하고 싶은 매력적인 콘텐츠가 개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태권도 관계 조직을 통한 연구를 통해 태권도 콘텐츠

의 수익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국기원 및 세계태권도연맹,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준비하고 필요한 기술 및 사안에 대해 태권도 연관 중소기업들에게 공모하여 유익한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어 중요한 것은 활성화된 연구의 성과물이 태권도계 전반에 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태권도 정보 공유 정책 및 사업도 하루 빨리 완성하여 안정화 해야 할 것이다.

(5) 세계화 범주의 현안과 개선 방향

세계화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안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내 태권도장과 해외 태권도장의 교류가 미흡하고 한인 출신 지도자 이외의 현지 국가 출신의 해외 우수 지도자의 교류가 현장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장의 비즈니스화 인해 한때 태권도 교육 기법을 역수출 하던 미국등지의 지역 도장에서도 점차 태권도가 아동체육의 보완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도장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교류하기 위한 전문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미디어 및 웹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현지 우수 지도자 교육 및 강연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의 태권도 아동 체육화는 태권도 발전에 결과적으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연령층을 수용할 수있는 태권도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프로태권도 육성이 시급해 보인다.

태권도 봉사단 활동의 확장성 역시 세계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태권도를 활용한 ODA 체계의 개선을 통해 기존 태권도 봉사활동의 노하우와 정보를 집적하고, 경험 있는 인적자원들의 활용을 통한 전략적

태권도 봉사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량 용품의 제공이나 중, 단기의 태권도 수련을 넘어서서 태권도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태권도를 활용한 커뮤니티 재건의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태권도 ODA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 되어야 한다. 태권도 ODA(공적원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점 협력국 중 정규과정에 태권도를 포함시키기 용이한 국가를 먼저 선별한다거나, 기존의 문화원 진출 지역에서 태권도 문화원 행사의 연계와 체계화, 또는 태권도를 한국학 진흥사업단의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전략 영역별 태권도 세계화 방안

앞서 살펴본 태권도 현안과 개선방안을 각 내용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면 전략적 범주를 도출 할 수 있고 이를 재구성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범주별로 <그림 20>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앞선 <그림 17>과 <그림 19>를 바탕으로 <그림 20>과 같은 거버넌스, 대중화, 정체성, 산업화, 세계화로 구분된 5개의 전략적 영역을 구성하였다. 아래의 전략 범주는 상호작용을 해야 미래 태권도의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0. 태권도 세계화 전략의 5대 영역의 구조



	문제점	해결방안	접근 전략
거버넌스	4대 조직의 역할 기능 증폭	4대 조직 수장 협의체 구성	단계적인 업무 조정 및 통합
	심사권 문제	국기원으로의 중앙 집권화	시도 및 구지협회 국기원 사무관 배치
	도장 지원체계 강화	국기원의 관리 부서 설치	시도 지부 협회 교육 담당관 배치
대중화	성인 및 노인 태권도 프로그램 미흡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발	현 아동 수련자의 성인기 지속 수련 유도
	미디어 노출의 미흡	글로벌 스포스십 확보	경기 외 이벤트 개발
	연관 상품 및 서비스의 부족	태권도 전문가의 비즈니스 개발 지원	태권도 전공자의 직업진로 개발 연구
정제성	기본 교본만 존재	교육 트렌드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연구 성과의 보급 세미나 정기적 개최
	경쟁 무술과의 차별화	ITF 태권도와의 통합 가속화 지원	국제 이벤트 내 교류 및 연구 교류 강화
	관련 연구의 미흡	태권도 및 비태권도 전문학자 연구지원	국기원 연구소의 독립 기관화
산업화	사범의 고용 안정성 취약	4대 보험 의무화 및 영세 도장 지원	국내외 환경 분석 후 차등 적용
	태권도 연관 산업 벤처 부족	4대 조직 합자의 창업센터 설립	인재 양성 및 벤처 스타트업 지원
	미래 산업 준비 부족	연구소의 독립 및 기능 강화	정부 정책 대응 전담 부서 운영
세계화	해외 도장 교류 미흡	국기원에서의 해외 우수도장 연구팀 운영	국기원에서의 해외 우수도장 연구팀 운영
	해외 우수 지도자 교류 미흡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우수 지도자 교육 채널	재외 한국인 지도자 이외의 외국인 지도자
	해외 도장에서 아동체육화 흐름	공연예술기획 및 프로태권도 육성	태권도원을 활용한 이벤트 기획 및 홍보

그림 21. 5대 전략적 범주별 태권도의 세계화 방안

<그림 21>은 5대 태권도 세계화 전략 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림 21>에서는 미래 태권도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개의 범주 내에서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접근전략이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우선 검토되었다. 해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8 태권도 진흥계획을 통해 확인된 태권도 비전의 체계를 다시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2>은 2008년에 수립한 태권도 진흥 1차 계획의 로드맵이다. 해당 계획에서는 총 6개 부문 33개 사업을 중심으로 5년간 약 500억원의 예산계획을 수립되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림 22>과 <그림 23>은 태권도 2차 진흥계획의 비전을 나타낸 것으로 2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2014~2018)은 4대 전략부문 21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었다.

비전 (VISION) 태권도, 21세기 스포츠 문화의 핵심 역량



임무 (MISSION)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종주국의 위상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세계화추진



- 전략 1 : 태권도의 세계화
- 전략 2 : 국기 태권도 정립을 위한 기반강화
- 전략 3 : 국민이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저변확대
- 전략 4 : 세계적인 문화산업 및 관광 브랜드화



그림 22. 2008 1차 태권도진흥계획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08년 부터 2018년 까지의 태권도 진흥 1~2차 계획의 비전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구체화된 목적 사업 및 공공 사업 내용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태권도계에서 동인한 문제와 해결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것은 정부 주도 또는 태권도 조직 주도의 계획이 실행 효과성이 미약하거나 실천력 자체의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23. 2014~18 2차 태권도진흥계획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3)

특히 1차 2차 진흥계획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하한 전략과 기술적 지원체계가 다수 담겨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 발전의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음을 분석 가능하다. 다시 이 연구의 주 목적인 태권도 세계화 전략을 구체화하여 해결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거버넌스 범주의 해결방안과 접근 전략

거버넌스 범주에서는 4대 조직의 역할과 기능적 중복의 최소화가 가장 큰 해결과제로서 4대 조직의 수장 간 협의체 또는 위원회 조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기능 조정과 중복 사업의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4. 4대 조직 협의체 구성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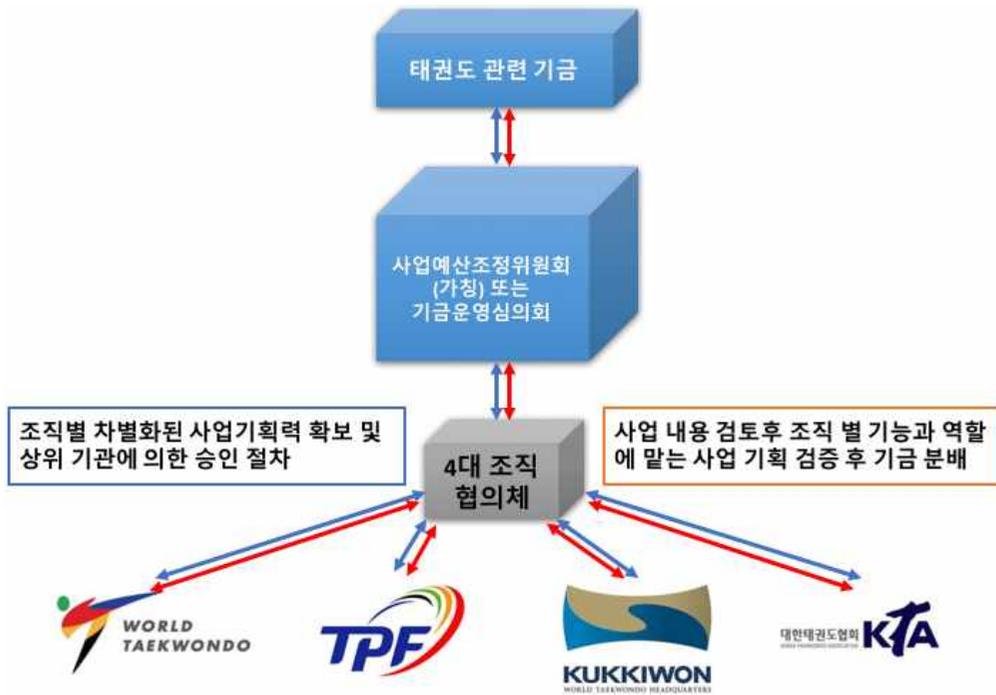


그림 25. 4대 조직 거버넌스적 기능 발전을 위한 개선안

즉 현행 조직 체계에서는 예산이나 관련 기금의 사용 권한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승인, 관리, 감독의 명확한 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 소속의 관리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에서 제시된 사업예산 조정위원회 또는 기금운영심의회(가칭)은 태권도 관련 문화체육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4대 조직 간의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직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한국스포츠개발원 산하에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 구성하여 태권도와 관련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면 복수 중복 사업이 이루어지는 폐단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재정의 지원에 있어 세계태권도연맹에의 국제기구적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스포츠 기구 자체가 정치적 간섭을 피하기 위해 ‘민간 기구’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국제기구로서의 행정적 지위 부여는 현행 법제도적 무리가 있다.

현행 체육관련 법령 중 체육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체육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표 6. 체육관련 법령 중 체육단체 규정 현황

법명	체육단체 규정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통합체육회) : 대한체육회 •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인해 법률의 효력 상실 (법률 제13251호 부칙 제2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장 태권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국기원) •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전통무예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이렇듯 체육관련 법령에서 체육단체를 법정법인화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관련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등 주무부처의 정책추진을 효율성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체육관련 법령 중 국제기구를 법정법인화하여 그 근거를 법령에 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최근 UNESCO와의 협약에 따라 충주에 설치된 ‘국제무예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전통무예진

흥법」에 법적근거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⁵⁾에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국립무예진흥원 설립 및 운영) 국가는 전통무예진흥을 위하여 국립무예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제스포츠기구의 외교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 기구와의 협력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 조항을 포함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같은 활용도 높은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영향력 활용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으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7.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2(국제기구 설립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하여 국제적인 체육단체의 국내 설립·운영하고,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입법목적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

5) 의안번호 : 2010155,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7. 11.14. 제안)

기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특히 그동안 서울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⁶⁾을 제정하는 개별 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목적은 고려하여 볼 때 위의 개정안의 신설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로는 국제스포츠기구의 외교적 영향력이나, 이들 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영향력 활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그 설립의 목적이 국제경기대회 유치만은 아닐 것이고, 설립된 이후로도 지속적인 각종 지원이 필요한 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제기구의 설립 및 지원방안은 이 법의 입법목적 및 법률체계상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보다는 국제기구의 설립 및 유치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스포츠 국제기구의 경우 UN과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자국 내 국내법의 민간 비영리기구로 인지, 국제기구와 같은 별도의 지원은 없다. 다만 국가별로 특구를 지정하거나,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6)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등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가 그 효력을 다하였다.

최근 국제스포츠의 외교적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종목단체 본부의 유치와 근무인력들에 대한 처우를 외교관 급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배드민턴의 경우 2005년 영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본부를 옮겼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드민턴 연맹 종사 인력에 대한 외교관 처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국제법적 관행으로 인지하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특정 종목에 대한 정책적 전략에 따른 지원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본부의 공식 유치등과 같은 전략 수립의 경우 우리나라의 글로벌 태권도 리더십 강화 로드맵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준거의 틀로 다양한 경우의 해외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중화 범주의 해결방안과 접근 전략

대중화 범주에서 확인되는 해결방안과 접근 전략의 열쇠는 수련 인구의 확보가 얼마나 가능한가이며 지도자 또한 지속적인 배출과 확보가 가능한가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림 26>과 <그림 27>의 제안은 태권도계가 자생 할 수 있는 태권도 상품 소비 인구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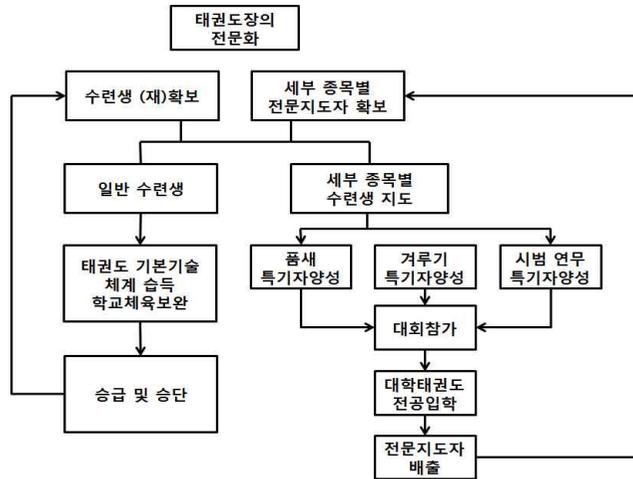


그림 26. 태권도 전문 수련프로그램 활성화 흐름도.

(출처: 김두한, 2012)

태권도의 세계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중화란 끝내 누구나 즐기는 태권도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태권도 상품의 가치를 보존하는 태권도 소비인구가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태권도 원천기술을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을 확장시키며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태권도인들 없이는 태권도의 세계화란 소모적인 제품 개발에 지나지 않는다. 태권도의 원천 상품과 이용자가 증가해야 태권도의 대중화를 이루어내는데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를 수련자 지도자 또는 연관 산업의 인력이 되어 또 다른 수련자와 태권도 소비자를 생성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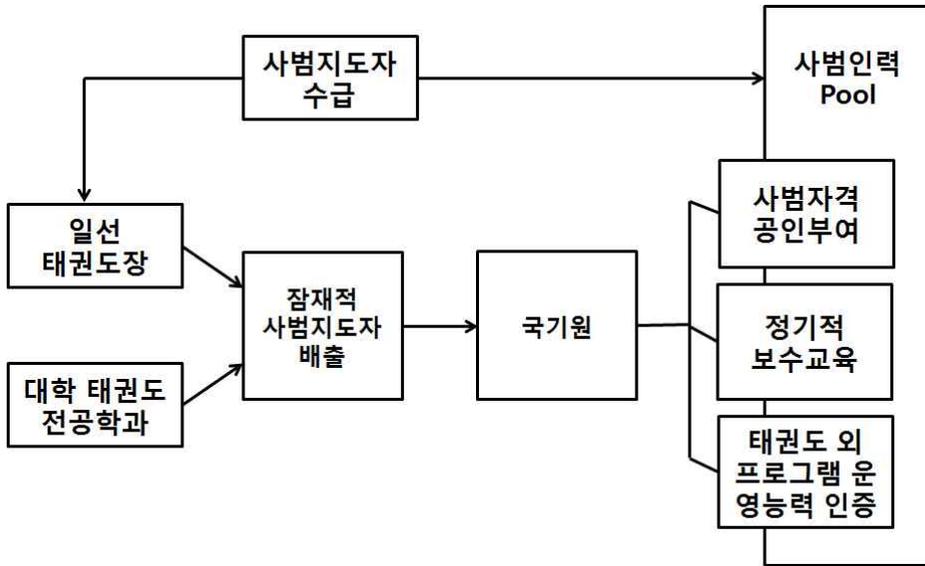


그림 27. 태권도 사범지도자 인력 데이터 베이스 관리 방안.

(출처: 김두한, 2012)

(3) 정체성 범주의 해결방안과 접근 전략

정체성 범주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태권도의 학문적 이론의 정립과 경쟁 무술과의 차별화이다. 이를 위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국기원의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권도 연구소의 독립기관화이다. 태권도 연구소가 태권도학의 이론 정립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이를 국내외 대학의 태권도 전공 및 무도 전공에 보급 전파 할 수 있다면 태권도와 관련한 파생 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적 상품을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국기원의 연구 네트워크 강화 작업은 미래의 태권도 연구소와 국기원의 역할을 고려 할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 기획실	정체성 연구실	세계화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널 편집위원 저널 출판위원 연구 윤리위원 연구소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과학 연구원 사회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텐츠 연구원 교육연수 연구원 경영관리 연구원 이벤트 연구원 용기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 및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교류 ※ 저널 발간 ※ 정보·자료 관리 ※ 연구결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의 이론화 ※ 태권도의 통섭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의 가치 확대 방안 ※ 이론화 연구성과의 현장화

그림 28.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모델 (출처: 국기원, 2017)

(4) 산업화 범주의 해결방안과 접근 전략

산업화 범주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태권도계의 폐쇄성을 탈피하는 것이다. 다만 태권도의 사회적,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태권도 전공자나 지도자의 역량과 시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 분야 및 공학 기술적 접근은 국기원과 연구소,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전문분야 인력과 융합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대사회의 산업 발전을 전 분야 간의 융합과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태권도는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태권도 수련이라는 전통적 상품에 갇혀 있으며 수련자와 지도자를 위한 상품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경제 및 사회상의 변화와 문화적 발전에 발맞추어 산업화를 이루는데 미흡한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태권도의 산업 환경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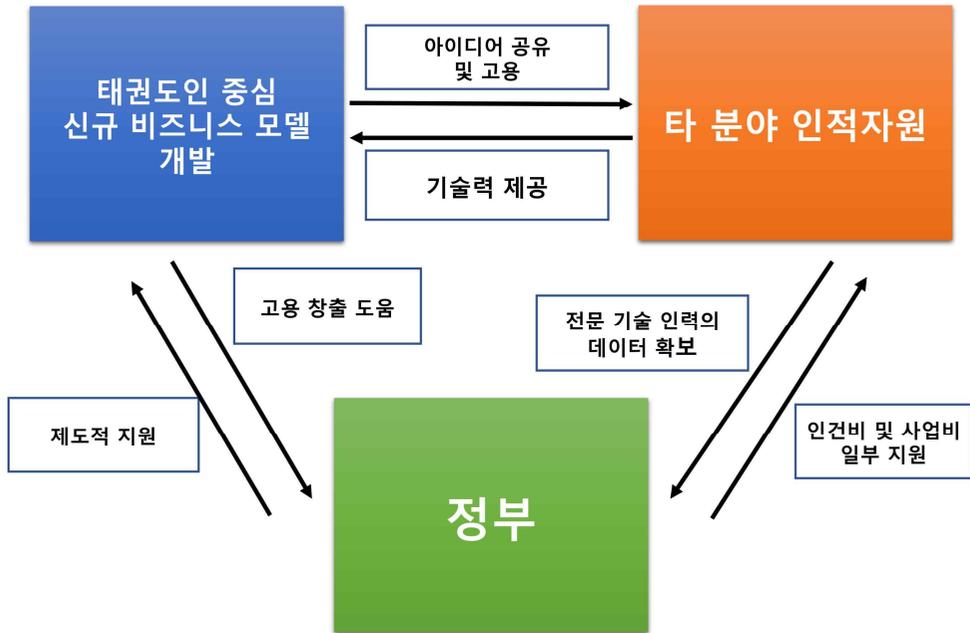


그림 29. 산업화 전략의 기본 모델(안)

(5) 세계화 범주의 해결방안과 접근 전략

세계화 범주의 전략을 고려 할 때 상기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현 시대에 와서 태권도는 무수히 많은 국가와 전 세계 인구가 수련하는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되어 있다. 여기에 이 연구가 지향하는 것은 태권도의 수치적 양적 발전에 비하여 전 세계인의 대중적 인식은 아직 태권도의 양적 발전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낸 데에는 한국이 태권도의 모국이라는 아집으로 해외의 우수 현지인 지도자들과 태권도인들의 의견에 소홀 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태권도가 진정으로 글로벌한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외 태권도인들에 대한 포용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4. 태권도 세계화 전략 로드맵

전략적 범주의 태권도 세계화 방안을 구성하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태권도 세계화 전략의 기본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여 글로벌 스포츠로서의 성장을 지속하고 태권도 본질적 가치의 보존을 위해 국가 무예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는 다차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그림 13>부터 <그림 24>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 태권도 세계화 전략의 로드맵을 <그림 25>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태권도 세계화 전략 로드맵은 준비-전개-발전-정착의 단계를 거쳐 세계화에 다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개의 과정에서 전략 범주의 내용들이 각각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발전기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하위 전략요인들이 이용되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연구를 통하여 규명한 태권도 세계화 전략에서는 향후 로드맵을 제안하며 그 내용을 구분하였을 때 거버넌스적 전략체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재정비 되어야함을 밝힌다. 태권도 4대 조직을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차별성을 부여받았을 때 한국의 태권도를 세계의 태권도로서 명품화 시키는 콘텐츠 개발에 더욱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적 전략을 체계화하여 기반을 새롭게 다진 태권도는 전개 단계에서 정체성: 태권도학의 이론적 정립, 대중화: 글로벌 상품의 내실화, 산업화: 태권도 연관 산업군 지원 강화, 세계화: 태권도 경기의 올림픽의 가치와 기능적 역할 고도화 등을 목표로 각 범주 및 영역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발전 단계에서는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 무예 태권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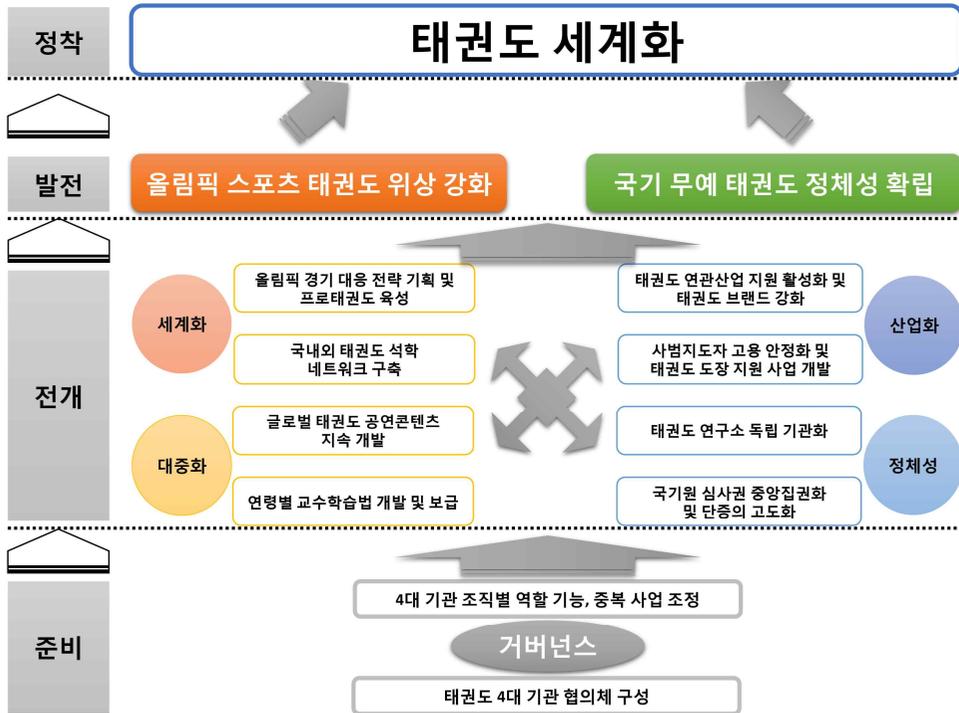


그림 24. 태권도 세계화 전략의 로드맵

거버넌스적 전략을 체계화하여 기반을 새롭게 다진 태권도는 전개 단계에서 정체성: 태권도학의 이론적 정립, 대중화: 글로벌 상품의 내실화, 산업화: 태권도 연관 산업군 지원강화, 세계화: 태권도 경기의 올림픽의 가치와 기능적 역할 고도화 등을 목표로 각 범주 및 영역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발전 단계에서는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 국기 무예 태권도로서의 전통문화 진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이 연구는 208개국의 수련국가를 확보한 세계태권도연맹 중심의 한국 태권도의 미래적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태권도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향후 사회의 발달에 대응하여 올림픽 스포츠로서 그리고 국기 무예로서의 역할과 세계인의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지속 생존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현재의 국내외 태권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현안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였다. 범주별 태권도 세계화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로 일컬어지는 국내에 위치한 태권도 4대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역할과 기능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안,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이 연구의 결과로서 거버넌스, 대중화, 정체성, 산업화, 세계화 등 5개의 전략 범주에 15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해결방안과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태권도 세계화 전략의 로드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 태권도 4대 조직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권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세계화 전략의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새로운 세계화 전략의 준비기에서는 거버넌스적 전략체계 재정비 한다. 전략의 전개기에는 정체성: 태권도학의 이론적 정립, 대중화: 글로벌 상품의 내실화, 산업화: 태권도 연관 산업군 지원강화, 세계화: 태권도 경기의 올림픽의 가치와 기능적 역할 고도화 등을 목표로 각 범주 및 영역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발

전기에는 실행된 각 전략에 따라 이원화된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국기 무예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리고 정착기에는 태권도 세계화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태권도는 한국이 발상국가로서 명예를 지키고 있는 세계인의 공동 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권도가 한국을 알리고 세계인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는데 유익한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세계화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시대로 사회의 구조와 모습이 발달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에 우리가 그 어느 국가와 조직보다 독창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한국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태권도임을 태권도인과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 연구가 그 바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 고진현(2012a). 태권도, 가자 올림픽핵심종목 선정을 위해. 스포츠서울. 검색일 2012, 11, 5. <http://news.sportsseoul.com>
- 고진현(2012b). 태권도 쾌거, 유러피언게임 정식종목 채택. 스포츠서울. 검색일 2012, 12, 20. <http://news.sportsseoul.com>
- 국제올림픽위원회(2012).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lympic.org>
- 김기한(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성과와 과제 ; 밴쿠버 발(發) 스포츠 한류열풍과 미디어 효과.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지, 111, 11-15.
- 김두한(2012). 태권도장 품질변화 예측에 따른 경영전략.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민선, 김영환(2010). 한국 스포츠외교 인재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체육교육학회, 15(3), 155-167.
- 김요한(2009). 이벤트와 스폰서 간 일치성이 스폰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스폰서 동기, 스폰서 공신력, 이벤트에 대한 태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11(2), 38-70.
- 김운용(2012a). 런던올림픽 이후 과제는. 뉴시스. 검색일 2012, 11, 15. <http://www.newsis.com>
- 김운용(2012b). 펜싱 특별상수여라니. 스포츠한국. 검색일 2012, 11, 15. <http://olympic.hankooki.com>
- 김중현(2007). 태권도산업 규모의 규명과 영역별 분석. 대한무도학회지, 9(1), 65-81.
- 남덕현, 광낙현(2015). 태권도세계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 전략. 국기원, 2015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결과보고, 2015(08).
- 성태제, 시기자(2010).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세계태권도연맹(2012), 세계태권도연맹 내부자료, 2012. 10. 22.
- 세계태권도연맹(2012).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 http://www.wtf.org/wtf_kor/site/about_wtf/intro.html
- 송형석(2017). 침입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연구지, 8

- (1), 1-25.
- 연합뉴스(2012).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 남아공 사로잡다. 스포츠조선. 검색일 2012, 11, 7
- 윤강로(2012). 윤강로의 스포츠세상, <http://rockyoon.tistory.com/1027>
- 이무현, 장권(2011).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태권도 경기변천 과정. 한국스포츠리서치, 22(1), 15-33.
- 이상용(2013). 아이러브태권도 운동본부 본격 활동. MBC이코노미뉴스. 검색일 2013, 2, 1. <http://mbceconomy.com>
- 이수관(2008).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존속을 위한 겨루기 경기규칙 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이천희(2012). 남북한 태권도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합 논의. 민족통일체육연구원, 제13회 한민족 체육학술대회.
- 전수진(2012). 태권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변신. 중앙선데이. 검색일 2012, 11, 7. <http://sunday.joins.com>
- 정국현, 김두한, 김하영(2014).
- 정현도(2011). 태권도 국제심판의 심판관정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태권도연구지, 2(2), 97-108.
- 조정훈(2012). ‘마루치, 아라치’ 라도 불러내야 할 판. 조선일보. 검색일 2012, 11, 05. <http://news.chosun.com>
- 한혜진(2012). 추락한 태권도 종주국 지금 필요한 것은 Reset. 무카스뉴스. 검색일 2012, 11, 05. <http://www.mookas.com>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스포츠개발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